

MORE & BEYOND



2021. 09+10.
vol.79

Contents

2021년 09+10월호 vol.79
MORE&BEYOND



인천국제공항 사보
<MORE&BEYOND>
2021년 9+10월호(통권 79호)
격월간(비매출)

등록번호 인천중, 바00008
발행처/발행인 인천국제공항공사 / 김경욱
발행일 2021년 9월 3일
담당 부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실(032-741-2012)
기획·디자인·제작 ㈜성우애드컴(02-890-0900)

Theme

- 06**
History
ESG 경영혁신으로 나아가는
인천공항 지속가능경영
- 08**
Issue
인천공항, 세계 최고 ESG 허브를 목표로 비상하다
- 12**
Airport & People
인천공항 ESG 경영혁신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 16**
Opinion 1
항공산업과 인천공항, 그리고 ESG 경영
- 20**
Opinion 2
인천공항 ESG 경영혁신을 위한 제언
- 24**
Idea in Airport
약기상 시 항공교통 수용량 조절체계 구축
- 32**
One Team
주기안내통합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한 안세기술
- 38**
타임머신
10년 전, 인천공항 속으로
- 40**
Special Review
지속가능성을 위해 변화하는 세계공항
- 42**
#로 보는 세계공항
ESG 경영을 향한 세계 공항의 노력

사람과 하늘 Listen to

- 46**
Team & Family
더 오래오래! 더 튼튼하게! 건축물 수명연장의 모든 것!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시설그룹 부대건물 건축시설팀
- 50**
현직자가 들려주는 노하우
"인천공항 부대건물, 우리가 고친다"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시설그룹
부대건물 건축시설팀 정학민 팀장
- 52**
인천공항 채용소식
공항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직무훈련 프로그램 개설
- 54**
공항 TMI
It's all for you. 인천공항 맞춤형 서비스
- 58**
공항맛집 요기요
인천공항 상주직원이 사랑하는 맛집
'오므토토마토 다이닝'
- 62**
안방에서 세계일주
시련을 이겨낸 역사를 가진 베트남
- 66**
즉문즉설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 가을에 어울리는 책
- 70**
Airport News
인천공항, 英 스카이트랙스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
2년 연속 2개 부문 수상 쾌거

사람과 하늘 Play with

- 76**
Airport 스타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해설위원 한유미
- 82**
Art & Airport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터미널'
- 86**
주말에 뭐하니?
CGV DRIVE IN 스퀘어원에서
이색적인 영화 여행을 떠나보자~!
- 88**
항공 상식
비행기 타이어는 자동차 타이어와 다르다?
- 90**
Trip
이야기가 있는 인천 독립서점을 찾아서
- 96**
공항 Letter
- 98**
댓글 이벤트

공항·항공 산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
—
집중 탐구하다

Theme

인천공항은 ESG 경영혁신 선포식을 통해
2021년을 ESG 경영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저탄소 친환경 공항구현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려는
인천공항의 노력을 살펴본다.

ESG 경영혁신으로 나아가는

인천공항 지속가능경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천공항의 성과와 노력을 돌아본다.

2020. 10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성지수 11년 연속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지속가능성 지수(KSI, Korea Sustainability Index) 국토교통부 1위 기업으로 11년 연속 선정되었다. 공사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후변화 대응 노력 △공정거래질서 확립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0. 12



2020 지역사회공헌 우수기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시상식에서 지역사회공헌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0. 12



코로나 한파 지역사회
통 큰 희망나눔 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회공헌 성금 22억 7천만 원을 전달했다. 공사는 2016년부터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사회공헌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성금은 5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공사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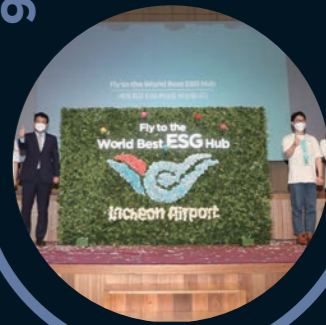
2021. 03



14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KMAC)이 주관한 '2021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SOC 시설관리부문 14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30대 우수기업(All Star) 부문에서는 전체 12위, 공기업 1위로 12년 연속 선정되었다. 공사는 6대 핵심 가치 중 사회가치, 고객가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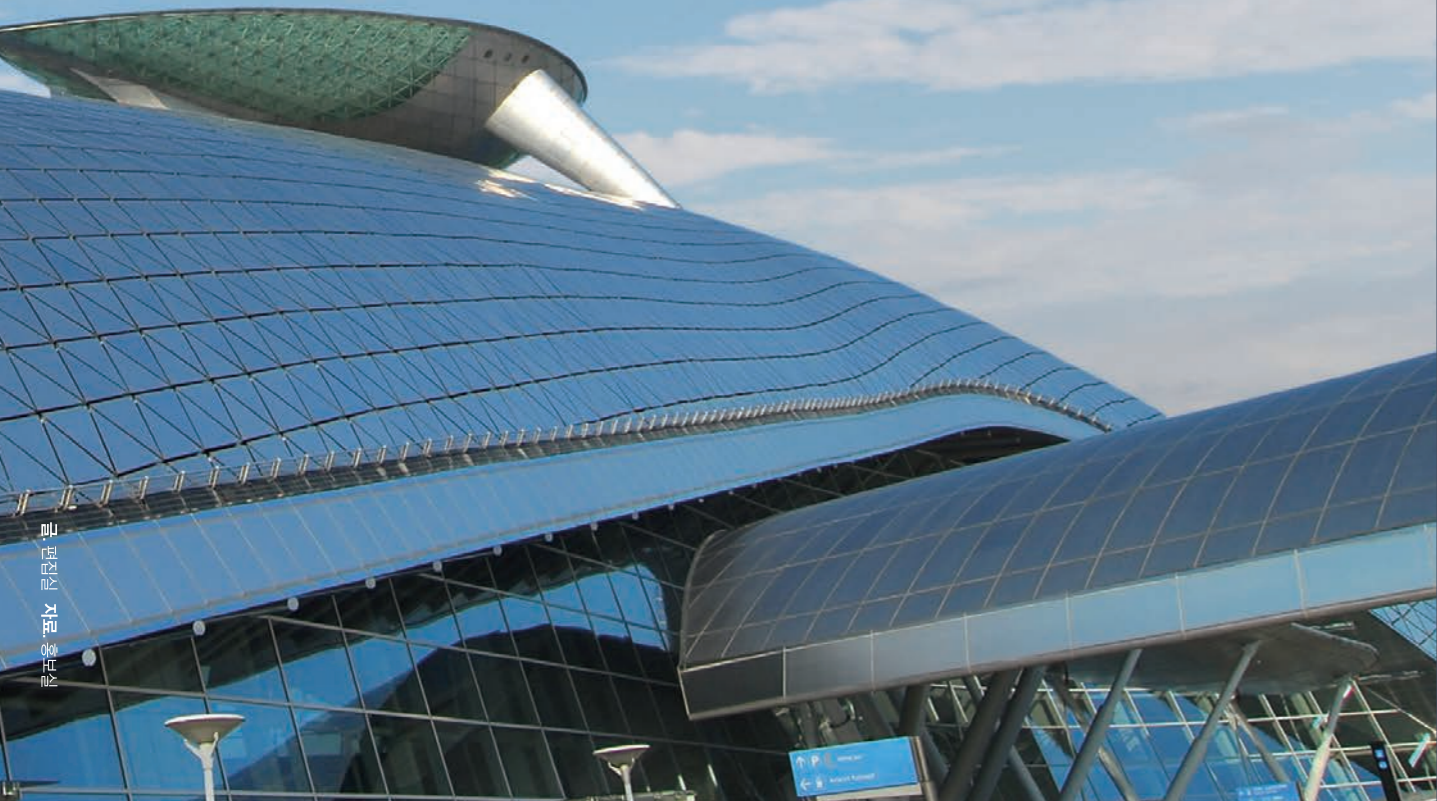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공사
ESG 경영혁신 선포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을 ESG 경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ESG 경영 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발표했다. 선포식에서는 공사 및 자회사 간 ESG 경영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친환경, 인권, 윤리 등 인천공항 내에 ESG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인천공항, 세계 최고 ESG 허브를 목표로 비상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을 ESG 경영혁신의 원년으로 삼았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등의 ESG 경영혁신을 추진할 미래공항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1.

ESG 경영혁신 선포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23일 공사 대강당에서 *ESG 경영혁신 선포식을 통해 2021년을 공사 ESG 경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ESG 경영 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공사 비상임이사를 포함해 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 김중서 사장, 인천공항시설관리 황열현 사장,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정태철 사장, 인천국제공항보안 우경하 사장, 그리고 고객대표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혁신단이 참석하였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오프라인 참석자를 최소화했으며 사내 중계 및 유튜브 생중계 등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공사는 인천공항의 ESG 경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사 및 자회사 간 ESG 경영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친환경, 인권, 윤리 등 인천공항 내에 ESG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선포식 행사는 공사가 육성사업을 진행 중인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행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친환경·재활용품으로 사용하고 공항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ESG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

2.

ESG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 패러다임 전환

최근 범지구적인 친환경 노력, 사회적 가치 창출,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가치가 기업경영의 필수가 됨에 따라 공사는 지난 3월 新비전 2030+ 수립 시 'ESG 경영혁신'을 주요 전략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번 ESG 경영혁신 선포를 통해 ESG로 경영 패러다임을 본격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E)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S)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G)의 경영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ESG 허브로 도약할 계획이다.

E

Environment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공사는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올해 아시아 공항 최초 *RE100 가입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RE100 목표를 실현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소항공기 인프라 구축 및 바이오 항공유 공급체계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공항지역 운행 차량의 그린모빌리티 100% 전환과 친환경 공항 건설 및 공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70% 재활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 공항'에서 '에너지 자립 친환경 공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RE100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

新VISION 2030+

We Connect Lives, Cultures and the Future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갑니다

사람과 삶의 가치 연계
Connect Lives

- 디지털 공항운영
Digital Transformation
- ESG 경영혁신
ESG Innovations
- 스마트 안전 플랫폼
Smart Safety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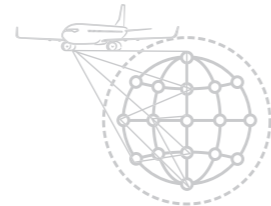
글로벌 메가 허브
Global Mega H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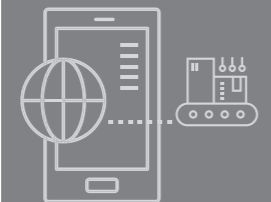
미래형 물류 플랫폼
Future Logistics Platform



융복합 문화/산업 벨트
Airport Cultural & Economic Zone



미래 패러다임 혁신 Connect the Future



- 차세대 모빌리티
Next-generation Mobility
- 해외사업 영토 확장
Overseas Business Expansion
- 미래 공항 확장
Airport Expansion

S

Social

사람 중심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

공사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2030년까지 공항생태계 일자리 12만개를 창출하고 고객과 공항 종사자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무결점·무사고·무재해 공항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 투자를 통해 지역·국가·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항공·관광 융복합 신개념의 공항경제권 개발 가속 및 인천공항형 뉴딜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며, 소통 중심의 창의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 쇄신으로 인천공항을 함께 성장하는 행복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G

Governance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

공사는 모든 영역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기회의 공정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장기 목표 실현에 필요한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노동이사제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 부패행위는 예외없는 신상필벌로 공기업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고, 인천공항 전체에 인권, 공정, 투명 등 핵심 가치를 확산시켜 임직원, 고객, 공항 관계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실천해 가는 'One Airport'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ESG 경영 선포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으로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화 등 ESG 경영혁신을 통해 미래공항의 발전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의 ESG 경영혁신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연세대학교 이호영 교수

인천공항은 ESG 경영혁신을 선포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있어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사)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이자 연세대학교 ESG/기업윤리연구센터장인 이호영 교수를 만나 인천공항의 ESG 경영혁신의 요소와 성과측정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았다.

Q. ESG가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부작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가시화되면서 유럽연합(EU)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한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고, 환경성과와 관련된 기업의 실천의지를 평가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지대해졌습니다.

Q. ESG 혁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Fly to the World Best ESG Hub” 즉, 세계 최고의 ESG 허브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와 ESG 지향성을 보여주며, ESG경영을 선도적으로 잘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ESG전략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환경과 관련해서는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하고,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및 투명경영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을 목표로 함으로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 주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ESG 경영혁신을 위해 새로운 활동을 추가한다기 보다는, 기존 활동을 평가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RE100

등 도전적인 국제적 캠페인에 동참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도입을 한 것은 가시적인 목표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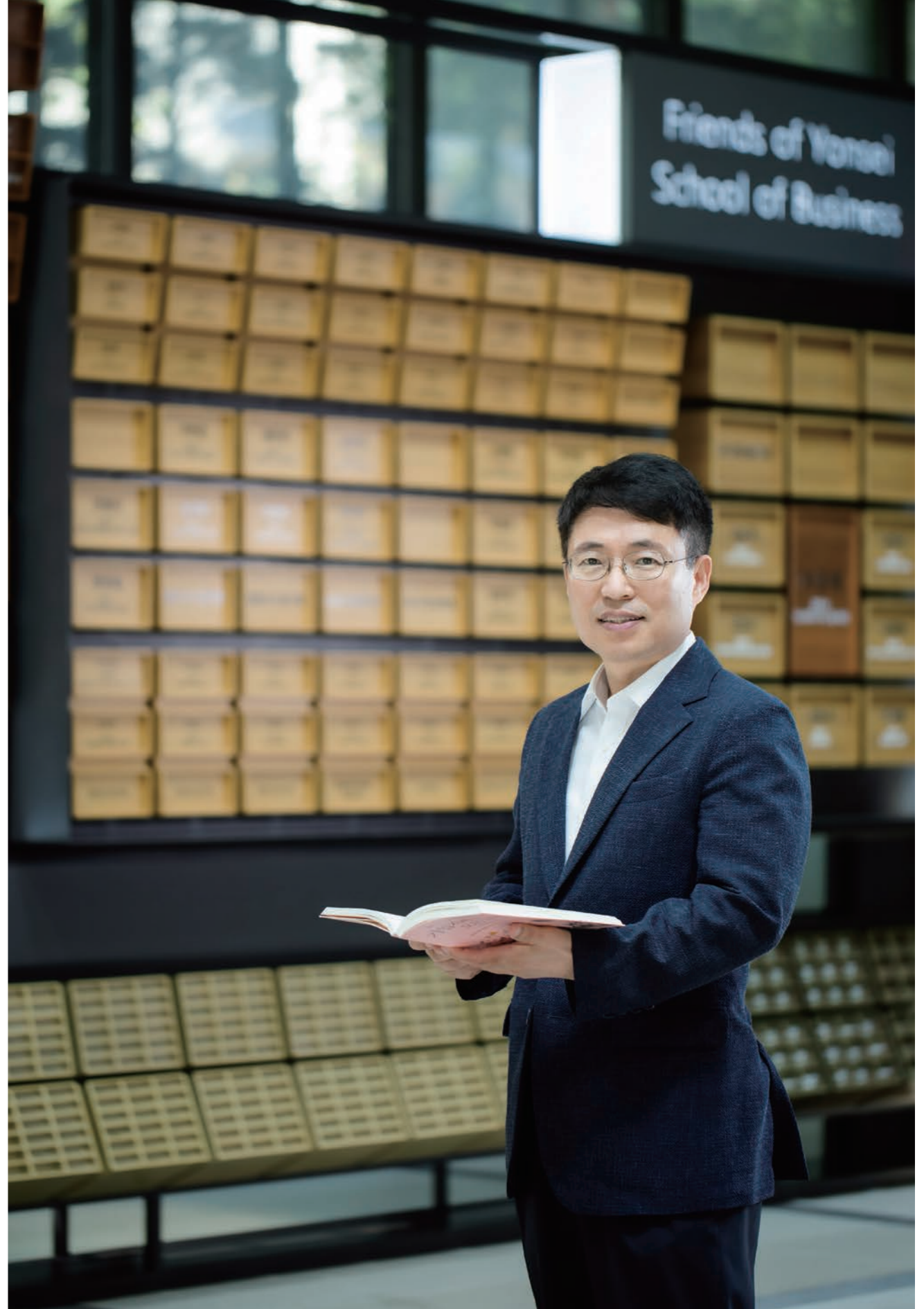
Q.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행하여 일자리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 신규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은 운영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됨으로, 이는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축인 재무건전성과 효율성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국민과 규제기관은 공익목적 책무성(Accountability)과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성과와 운영 효율성(Efficiency)을 담보로 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인적 및 물질 자원 사용의 효율성확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이 ESG경영의 일환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어, 자원투입의 부가가치를 평가하고 측정하여 경영전략과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진정성의 확보에는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이 전통적인 기부형태의 사회공헌활동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철저한 프로그램의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호영 교수

現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국민권익위원회 민관협의회 위원
연세대학교 ESG/기업윤리연구센터장





질 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화학 물질 배출량 등 전통적인 환경저해 요소에 대한 정보와 기업의 환경민감도, 환경전략, 환경조직, 환경경영 및 이해관계자 대응과 관련된 정책과 인프라를 갖추는 전통적인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사회성과와 관련해서는 인권과 관련된 정책, 노사관계, 합리적 보상, 산업안전과 중업원의 건강뿐 아니라, 인적자본의 개발 (Human Capital Development), 데이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품안전 등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오늘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표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급망 내의 조직들에 대해서도 기업의 ESG전략에 반할 여지가 있는 조직과의 거래를 피하고, 의사결정 시에 그들의 ESG 성과를 고려해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기업의 경우 공공성에 매몰

Q. ESG 성과측정의 핵심 지표는 무엇입니까?

ESG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당기의 산출 (Output) 성과만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래의 성과를 포함한 장기적 결과(Outcome)와 가치 확산에 주는 영향(Influence)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ESG 성과측정을 위해 관리해야 할 주요 지표는 탄소 배출량, 수



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자본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ESG채권, 그린채권,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여 자본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Q. 인천공항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ESG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ESG활동을 진정성, 실재성, 측정 가능성, 보수성, 단순성 및 표준화의 원칙 하에서 평가해 보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 한정된 자원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그 지속가능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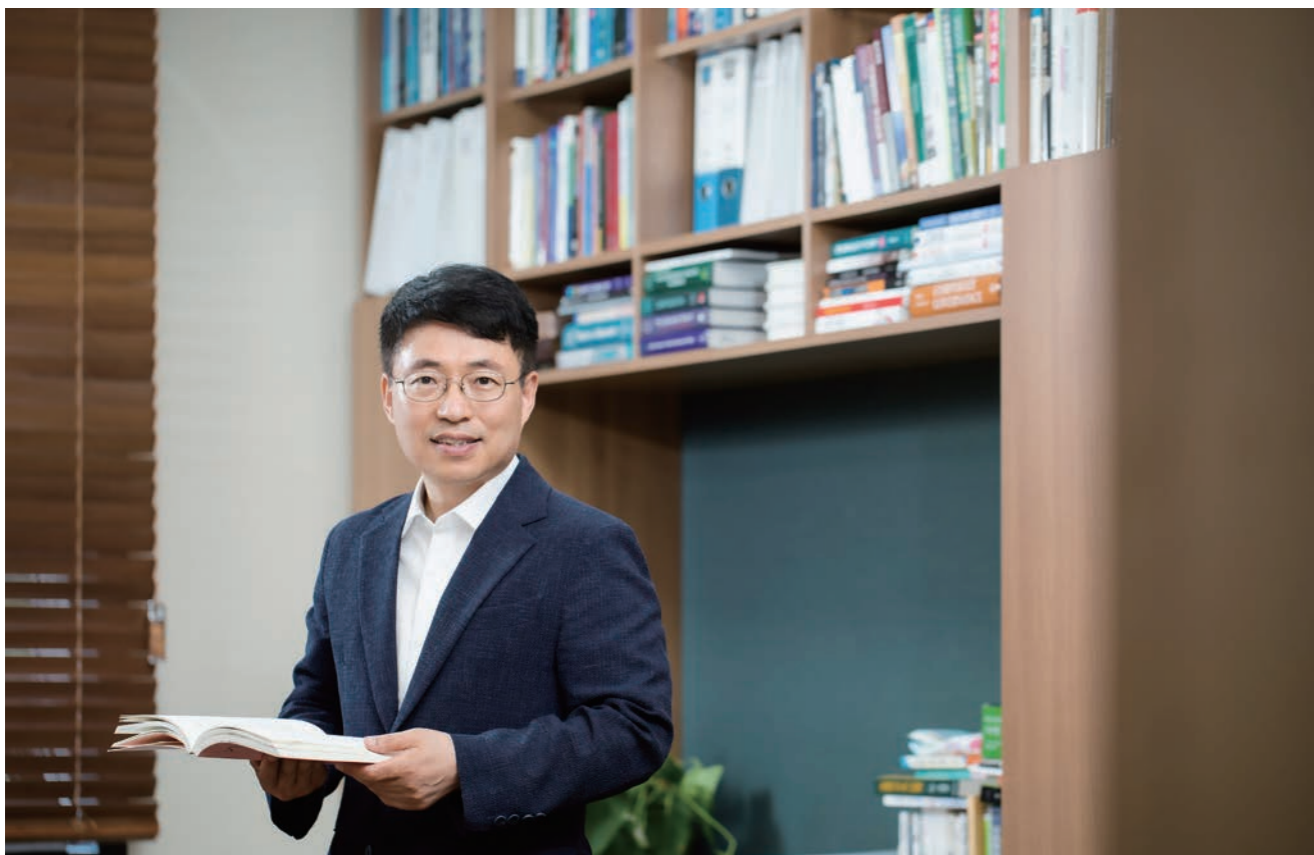
되어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SG경영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서도 핵심사업의 경쟁력과 결합되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ESG전문가를 육성하고 측정 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 ESG 경영혁신이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ESG 경영이 기업의 가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가치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첫째,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매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ESG경영을 통한 명성효과 및 고객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ESG경영을 통해 기존 프로세스의 혁신의 기회를 발견하여 비용절감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유형 및 무형자산의 가치는, ESG경영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를 높여 부가가치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해당 자산의 효과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자본구조를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의 판단기준으로 ESG성과 지표가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여 안정적인 자본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자본시장 참여자들과의 적극적인 ESG경영에 대

- ESG경영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서도 핵심사업의 경쟁력과 결합되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ESG전문가를 육성하고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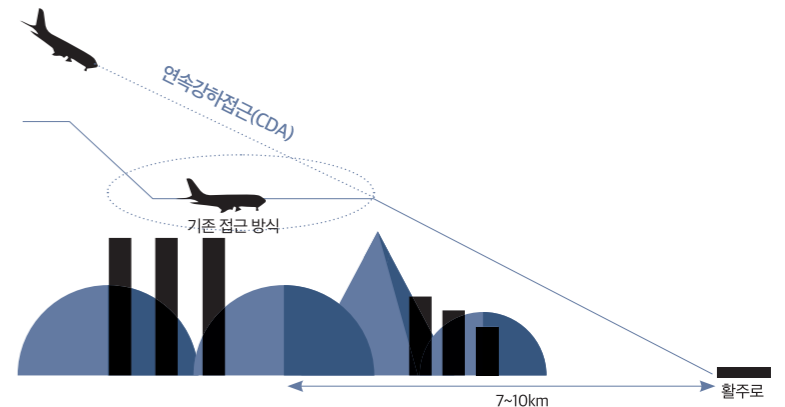


항공산업과 인천공항 그리고 ESG 경영

ESG 경영은 투자자들이 앞서서서 경영진에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배려하는 경영 방식을 요구하며, 따라서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서도 엄밀한 측정과 분석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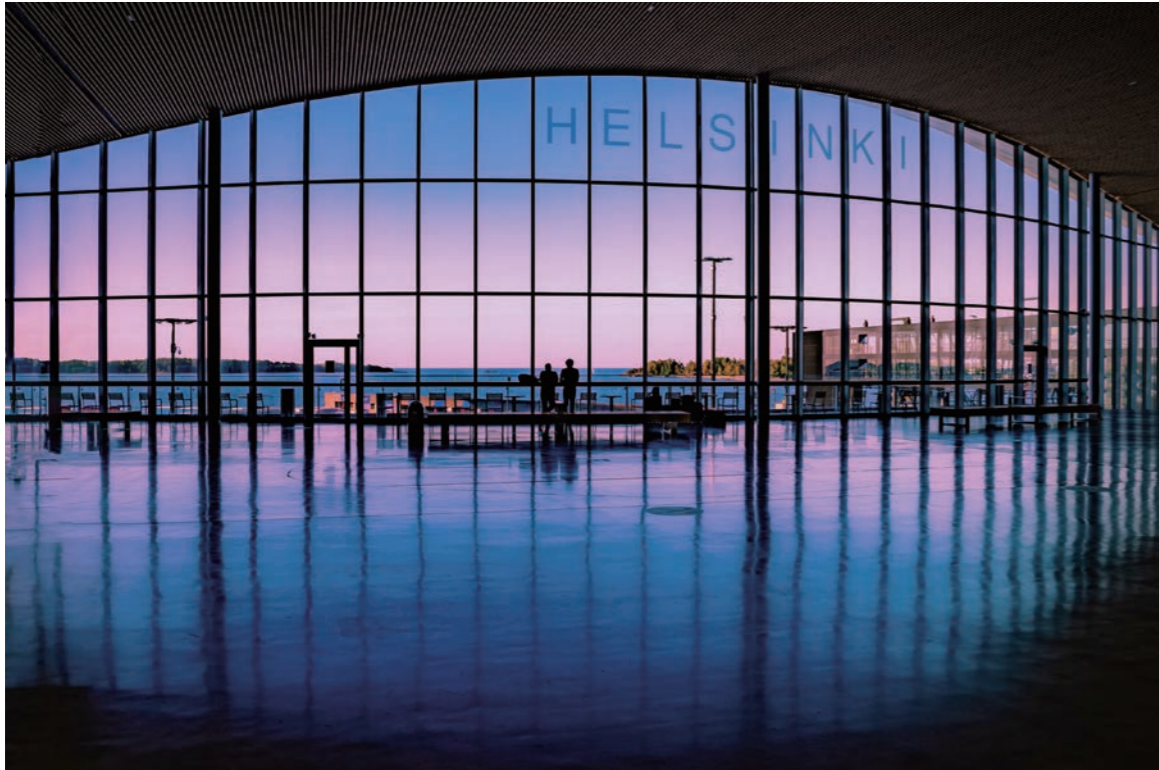
교수라는 직업상 코로나 19 이전까지는 해외 출장이 잦았다. 2010년 3월 핀란드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핀에어 여객기에 몸을 실었다. 가는 길에는 처음 방문하는 핀란드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설렘과 학회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뒤섞여 잠도 잘 오지 않았다. 긴장을 풀기 위해 기내지를 뒤적거리던 중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띄었다. 핀에어가 최근에 채택한 새로운 착륙 방식인 연속강하접근 (Continuous Descent Approach, CDA)에 대한 기사였는데, 이는 항공기의 첨단항법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의 계단식 착륙 방식을 개선, 최적의 착륙 각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연속적으로 강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연료 절감은 물론, 항공기 소음 및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비행 방식을 말한다. 보통의 항공기는 1.8km를 비

행하는 동안 11kg의 연료를 소모하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연료의 3배에 달하는 35kg의 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데, 연속강하접근을 시행할 경우 당시 핀에어의 주력기인 에어버스 A330-300의 경우 최대 300kg까지 연료 절감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최대 960kg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핀에어의 허브 공항인 헬싱키 국제 공항의 경우 이 방식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만 3천 톤 감소시켰다고 하며, 이는 이미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던 유럽 시장에서 추가적인 이윤 증가로 바로 이어졌다. ESG 경영의 뿌리가 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전략을 전공하는 나에게 긴 비행의 피로를 씻어낼 만큼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디어였다. 발전한 항법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함



문정빈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사, 런던정경대에서 경제학 석사,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 상하이교통대 조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재직 중이며 연구분야는 ESG 경영 전략, 비시장 전략, 글로벌 전략 등이다.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경영학 연구 등 다수의 국내외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환경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지상에 도달하는 소음을 줄임으로써 지역공동체에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며, 동시에 연료 절감을 통해 경제적 가치 또한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야말로 항공사가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기내지를 고이 챙겼고, 핀란드에서 학회를 마치고 귀국한 후 이 아이디어를 강의에 사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리서치를 해 보았다. 2004년부터 브리티시 항공과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이 방식을 도입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지방항공청이 2007년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김포국제공항에서 연속강하접근 절차를 운용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강의에서 기업이 환경,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유가치 창조 (CSV)의 대표적 사례로 사용해 왔다. 이는 ESG 경영의 모범으로 그대로 연결되

는 사례이기도 하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 ESG 경영이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의 영어 첫 글자를 딴 용어로서 기업이 비재무적 경영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경영 방식이다. 그동안 사회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등의 개념들이 있었지만, ESG 경영은 투자자들이 앞장서서 경영진에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배려하는 경영 방식을 요구하며, 따라서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서도 엄밀한 측정과 분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경영 평가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재무적 성과에 주목해 왔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경영학자의 관점에서 ESG 경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조언은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다.

— ESG 경영이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영어 첫 글자를 딴 용어로서 기업이 비재무적 경영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경영 방식이다.

— ESG 평가기관인 MSCI의 경우 항공 산업에서 환경 (E) 분야에 약 32%의 가중치, 사회 (S) 분야에 약 47%의 가중치, 그리고 지배구조 (G) 분야에 약 21%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ESG 경영의 세계적 대가인 런던경영전문대학원 (LBS)의 알렉스 에드먼즈 (Alex Edmans) 교수는 2020년 저서 'ESG 파이코노믹스' 에서 효과적인 ESG 경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곱셈의 원칙으로, 기업이 이해관계자를 위해 1달러를 지출했을 때 해당 이해관계자가 1달러 이상의 혜택을 얻는지를 고려하는 원칙이다. 이해관계자가 얻는 혜택이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클 때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비교우위의 원칙으로,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가치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지 생각해 보고 가장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원칙은 중요성의 원칙으로, 해당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업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 측면에서 따져 보고 중요한 이해관계자부터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 자연환경, 주주, 지역공동체,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할 때 그들이 가지는 이유에 대한 기여도는 물론, 이윤을 뛰어넘는 본질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인 MSCI의 경우 항공 산업에서 환경 (E) 분야에 약 32%의 가중치, 사회 (S) 분야에 약 47%의 가중치, 그리고 지배구조 (G) 분야에 약 21%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고객, 직원이 포함되는 사회 분야 가중치가 가장 당연히 크고, 또한 항공산업이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산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환경 분야가 중시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경영진의 입장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리고 각각의 세부 항목들의 중요성 정도를 잘 파악하여 경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한정된 경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두 번째 조언은 ESG 경영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무적 성과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흔히 ESG 경영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라는 밀튼 프리드먼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프리드먼의 주장도 1970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히려 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자본주의의 호황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에 수많은 대기업의 전문경영인들이 과시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한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주주 중심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기업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ESG 경영이 대세가 되었으나, 만약 ESG 경영이 왜곡되어 낭비적 지출과 투자를 정당화하는 데에 응용된다면 시대의 흐름이 역전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하여 경영자원의 낭비 없이 진정한 의미의 환경적, 사회적 가치와 투명성, 책임성과 같은 건전한 지배구조의 원리를 재무 성과와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는 인천공항이 되기를 기원한다.





강인수 교수

강인수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근무하다 1993년부터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경영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UNDP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위원,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인천공항
ESG 경영혁신을 위한 제언**

ESG 경영은 기업이 속한 사회의 발전 없이는 기업의 존속과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월 23일 공사 대강당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혁신 선포식' 개최를 통해 2021년을 공사 ESG 경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ESG 경영 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발표하였다. 올해 국내에서 ESG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연초부터 선도적으로 ESG경영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정부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감안해 녹색 제품 구매 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신설하고 혁신조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관련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점도 공사의 ESG

경영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세계 최고의 ESG 허브공항로 도약하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E)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S)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G)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첫째, 공사는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E)을 위해 올해 아시아 공항 최초로 RE100에 가입할 예정이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항공기 인프라 구축과 바이오 항공유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공항지역 운행 차량 100% 그린모빌리티 전환과 친환경 공항 건설 및 공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70% 재활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 공항'에서 '에너지 자립 친환경 공항'으로 탈바꿈할 계획도 밝혔다. 둘째, 사람 중심의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S)를 위해 2030년까지 공항생태계 일자리를 12만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무결점·무사고·무재해 공항 구현을 위해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 투자를 통해 지역·국가·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고 항공-관광 융복합 신개념의 공항경제권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G)을 위해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장기 목표 실현에 필요한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노동이사제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인천공항 전체에 인권, 공정, 투명 등 핵심 가치를 확산시켜 임직원, 고객, 공항 관계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실천해 가는 'One Airport'를 구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SG 경영은 기업이 속한 사회의 발전이 기업의 존속과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



— ESG 경영은 기업이 속한 사회의 발전 없이는 기업의 존속과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ESG 경영 강화는 글로벌 비즈니스·금융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ESG가 투자자·주주들의 핵심기준으로서의 비중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의 움직임이기도 하다. ESG는 2000년대 초반부터 영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정보 공시 의무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이미 산업계의 화두였고, 자본시장에서도 핵심적인 투자원칙이었다. 2006년 유엔(UN)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수립한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은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에 ESG 고려 ▶투자 및 운용 방향에 ESG 적극 반영 ▶투자의 ESG 준수 여부 정보공개 청구 등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의 6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기업들이 ESG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ESG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ESG 정보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차원을 넘어 하

나의 중요한 평가 및 투자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구별된다. ESG 경영은 CRS처럼 시혜적, 윤리적 책임과 같이 기업의 사회에 대한 의무감에서 행해지는 소극적 경영이 아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비즈니스모델의 핵심에 두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는 적극적 경영이다. ESG를 관리하지 않으면 재무적 성과도 타격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ESG는 새로운 표준이자 생존전략으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ESG 평가지표는 알려진 것만 국내의 600여개가 넘는다. 평가기관과 항목이 난립함으로써 똑같은 기업이 평가기관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현실적인 ESG 목표 우선순위를 정하고, ESG의 본질을 인천공항의 경영 전반에 내재화할 수 있는 경영 방식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정보공개로 인해 ESG 경영 혁신의 산출물들이 잘 드러나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이 발표한 ESG 경영 계획은 ESG

전반을 포괄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공사는 민간기업과 지배구조가 확연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에는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배당과 같은 요소가 고려된다. 공사의 경우도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되지만,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ESG위원회를 통해 ESG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사업기회 요인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 특히, ESG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요구사항이나 자체 필요성, 그리고 법제도 반영의 관점에서 단계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ESG경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기업실적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조속한 성과 지표 표준화도 필요하지만, ESG가 기업이익 줄이는 '굴레'가 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ESG를 내재화하는 능동적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악기상 시 항공교통 수용량 조절체계 구축

저시정, 강설, 낙뢰와 같은 악기상(adverse weather)은 항공편 대량 지연 및 계류장 혼잡을 발생시켜 여객의 장시간 대기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공항운영의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악기상에 의한 공항 수용능력의 영향성을 분석하고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번 Idea in Airport에서는 이러한 항공교통 수용량 조절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관련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Operational capacity in adverse weather

서론

2017년 12월 23일 오전, 인천공항의 저시정 상황이 6시간 가까이 지속되면서 출발 항공편 대부분이 계획된 시간에 이륙하지 못하고 게이트를 지속 점유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도착 항공편이 게이트 부족으로 계류장에 장시간 대기하는 등 극심한 지상 혼잡이 빚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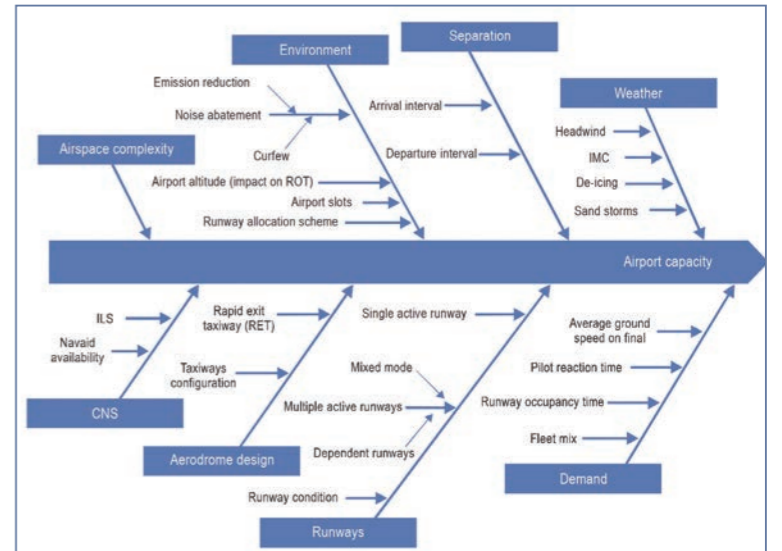
인천공항은 저시정 상황에서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을 사실상 최고 등급인 CAT-IIIb¹⁾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인천공항 항공기 결항의 65%, 지연의 9%가 악기상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이륙 기상최저치가 착륙 기상

최저치에 비해 높아 발생하는 이착륙 항공편 불균형 때문이다.

항공기 지연·결항은 항공사는 물론 여객과 공항운영자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²⁾하므로, 악기상에 의한 공항의 수용능력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항운영 영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항의 수용량은 일반적으로 활주로/유도로, 항공교통관제, 터미널, 계류장 등 각 요소별 처리용량 중 가장 낮은 값으로 설정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항공교통 수용량으로, 공식수용량(declared capacity)이라고도 한다. 반면,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에서의 수용량은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여 높은 변동성을 가지

<그림 1> 공항 수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출처: ICAO Doc 9971 Manual on Collaborative Air Traffic Flow Management (ATFM) Third Edition, 2018)

- 1) 결심고도 15m 미만, RVR(활주로가시거리) 50m 이상 175m 미만 (인천공항은 75m)인 경우에도 착륙 가능한 시설
- 2) FAA(미연방항공청)는 항공기 지연에 의한 항공사의 손실을 시간당 \$1,400~\$4,500로 추산

므로 상황별, 시나리오별 분석이 필요하다. 인천공항과 같은 대형 허브공항에서의 항공교통 수용량 및 항공기 지연분석은 미시적(microscopic)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분석하도록 권고³⁾되고 있으며,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다양한 시뮬레이션 모형⁴⁾을 활용하여 공항운영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항공교통 수용량 조절체계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악기상 상황 발생 시 항공기 지상 지연 최소화 및 계류장 혼잡도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해외 항공교통 수용량 조절체계 현황

유럽 전체의 항공교통관리를 수행하는 유로컨트롤(EUROCONTROL)에서는 'ATMAP(ATM Airport Performance) Framework'를 통해 유럽 공항의 일관성 있는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공항운영에 기상미치는 영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날씨를 세 종류로 구분하여⁵⁾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유럽 각 공항별

기상의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알고리즘⁶⁾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부 대형 공항의 항공교통 수용량 (operational capacity) 산정 방법⁷⁾을 공유하여 유럽 내 각 국가 또는 공항이 이를 기반으로 수용량을 산출·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로컨트롤은 유럽의 각 공항으로부터 공항운영 관련 정보⁸⁾를 수집하여 웹기반 서비스⁹⁾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악기상 상황별 도착항공기 조절량을 공시하고 있는데, RVR(Runway Visual Range, 활주로가시거리) 및 운고(Ceiling)에 따른 도착항공편 기준 수용량 대비 감소량(%)과 강설·적설량에 따른 도착항공기 감소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악기상 상황별로 적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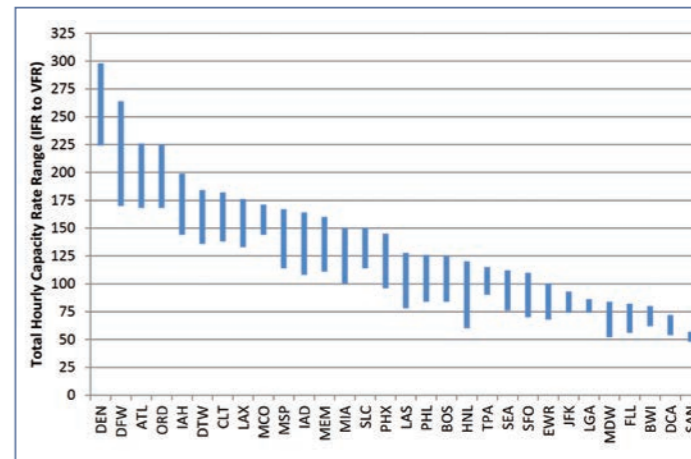
인천공항과 유사한 계기착륙시설을 보유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의 경우, RVR 1,500m 미만이거나 운고 300ft 미만인 저시정 시 아래 <표 1>과 같이 25%~65% 범위 내에서 상황별로 도착항공편을 감소시키는 수용량 조절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로컨트롤 공항정보 시스템

은 각 공항운영 주체가 해당 포털에 접속하여 자율적으로 입력하는 상황식(bottom-up)으로, 일부 공항은 미입력 또는 비공개(confidential)되어 있으며, 수용량 산정 기준 및 방법 또한 국가별·공항별로 상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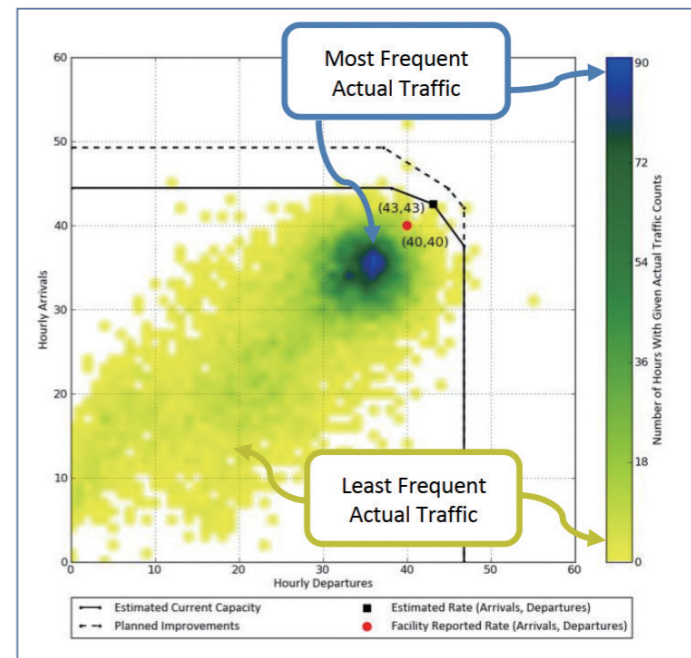
반면, 미연방항공청(FAA)은 각 공항별 기상상태¹⁰⁾에 따른 시간당 수용량을 산정하여 발표하는데, 모든 공항이 동일한 분석 기준과 방법을 사용하며, 항공교통관제(ATC) 기관에 의해 산정된 'called rate(시간당 평균 수용량)'¹¹⁾와 시뮬레이션 툴에 의한 결과 값을 <그림 2>와 같이 공시하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션에 의한 분석은 'runwaySimulator'(MITRE社) 툴을 활용하여 ATC 제약사항 및 활주로 구성 등을 반영한 수용량을 산출하나, 유도로, 게이트, 슬롯조정, 날씨변화 등 구체적·동적인 요소는 반영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미국의 수용량 산정체계는 FAA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되는 하향식(top-down) 방법으로, 유로컨트롤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지만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 미국 주요 공항 수용량 현황



(출처: FAA Airport Capacity Profiles)

<그림 3> 출도착 수용량 예시



- 3)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Defining and Measuring Aircraft Delay and Airport Capacity Thresholds,' 2014
- 4) 항공교통 지연분석 시뮬레이션 도구, 여객터미널 혼잡도 분석 시뮬레이션 도구 등
- 5) Nominal (Ceiling and Visibility OK (CAVOK) 수준), Degraded (악기상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상황), Disruptive (매우 드물게 발생하나, 공항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 6) 다양한 기상현상(Weather phenomena)을 심각도(Severity code)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악기상 정도의 종합적 판단 가능
- 7) 암스테르담 (the Capacity Prognosis tool), 브뤼셀 (the weather impact analysis tool), Paris ('Meteo Technical Committee' by A-CDM CDG) 등 일부 대형공항 수용량 산정 방법 제시
- 8) 항공교통 수용량 현황, 수요예측 결과, 항공교통관제(ATC) 정보, 기상·기후정보, 항공기 운영현황, 지상인프라 및 서비스 현황, A-CDM 정보 등
- 9) 유로컨트롤 Public Airport Corner (https://ext.eurocontrol.int/airport_corner_public)
- 10) VMC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 시계비행기상상태), MVMC (Marginal VMC), IMC (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 계기비행기상상태)의 3가지로 구분
- 11) 공항의 수용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ATC Facility Reported Rates' 으로서 불리며, 시간당 출발 수용량 평균치 (ADR)와 시간당 도착 수용량 평균치 (AAR)의 합으로 산출



<표 1> 네덜란드 스키폴공항(AMS) 저시정 시 도착항공기 조절 현황

Arrival Capacity Reduction (도착 항공편 수용량 대비 감소량, %)	Aeronautical Visibility (항공기 시정, m)						
	CAT III C	CAT III B	CAT III A	CAT II	VC2	IMC	VMC
Ceiling (운고, ft)	<50	<200	<350	<800	<1500	<5000	>5000
CAT III B	<50	65	65	45	45	45	45
CAT III A	<100	65	65	45	45	45	45
CAT II	<200	65	65	45	30	30	30
VC2	<300	65	65	45	30	25	25
IMC	<1500	65	65	45	30	25	0
VMC	>1500	65	65	45	30	25	0

(출처: EUROCONTROL Public Airport Corner)

**국내 항공교통 수용량
조절체계 구축 현황**

항공교통 수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항공교통흐름관리시스템(ATFMS)을 활용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공항 또한 공항운영 이해관계자의 정보공유를 향상시키고 한정된 공항 지상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항협동의사결정(A-CDM)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온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항공교통본부, 2019년 7월 제정)에 의거 공항 운영자가 저시정 시 항공교통통제센터(ATCC)에 항공교통량 조절을 위한 조치요청¹²⁾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천공항도 2018년 3월 '저시정 현장조치 매뉴얼'을 제정하여 저시정 단계를 4단계로 구분¹³⁾하였으며, 경계단계 이상에서 항

공교통량 조절을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ATFM)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ATFM은 공역(airspace) 수용량 관리를 중심으로 수행¹⁴⁾되어 공항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항운영자 간 수용능력 관련 정보공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GANP/ASBU¹⁵⁾에 ATFM과 A-CDM의 연계·통합 필요성을 강조함¹⁶⁾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공항 수용량 분석 및 예측 역량의 확보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 밖에도 ICAO는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 동결을 위해 2018년 국제항공 탄소 상쇄 감축제도인 CORSIA¹⁷⁾를 수립하였는데,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공항 내 항공기 운영개선(operational improvements) 측면에서의 공항운영자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12) 5.2.3.1 '공항 운영자는 위험기상 등 수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 상황에 대비하여 당해 시설의 수용량을 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정상 상황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 조정 수용량을 ATCC에 통보하여야 한다.' 8.2.1.2 '공항 운영자는 저시정 상황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CC에 항공교통량 조절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13) 저시정 심각도, 지속시간, 교통량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한 4개 단계로 구분
- 1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흐름관리는 '규정된 수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공역에서' 수행
- 15) GANP(Global Air Navigation Plan) ASBU(Aviation System Block Upgrades)
- 16) ASBU NOPS-B0/4 'Initial Airport/ATFM slots and A-CDM Network Interface'
- 17)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는 ICAO 부속서(Annex) 16 Volume IV로 채택('18년 6월)되었으며, 시범운영단계('21~'23), 1단계('24~'26, 자율적 참여), 2단계('27~'35, 의무적 참여)로 단계별 이행되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88 개국이 2021년부터 참여 중



인천공항 항공교통 수용량 조절체계 구축 연구

공항산업기술연구원에서는 악기상 상황별 공항의 수용능력 분석을 위해 '악기상 시 항공교통 수용량 조절체계 구축 연구'를 수행 중이며, 연구는 다음의 3단계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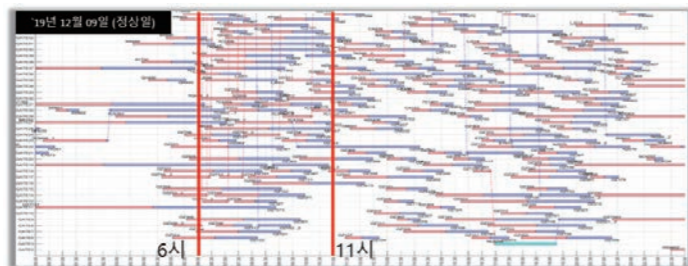
1단계로 저시정일에 발생한 대량혼잡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과거 운영 실적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항공기운항정보, 주기장운영실적정보, A-CDM 실적정보, 기상정보 등 각종 기초자료를 통해 저시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저시정으로 인한 출발 항공편 이륙 불가로 인한 게이트 점유 현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도착 항공편의 게이트 부족으로 저시정 상황 종료 이후에도 계류장 대기가 지속 발생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단계로 상기 기초자료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저시정 상황을 모사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시설도면, 운영규칙 및 절차, 운항스케줄과 같은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그림 5>의 예시와 같은 인천공항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모형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검증(validation)하는 단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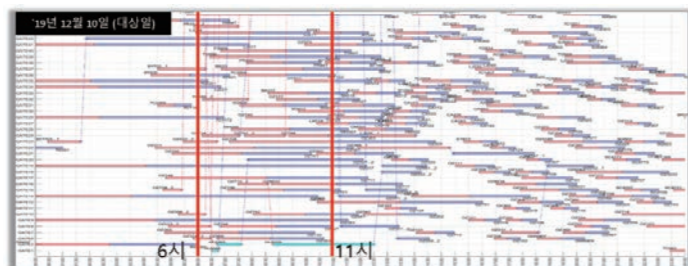
마지막 단계는 검증 완료된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악기상 시나리오별 공항의 적정 수용량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ATCC에 공유하는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ATFM 성능 향상 및 항공기 지상 지연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4> 정상일-저시정일 주기장 점유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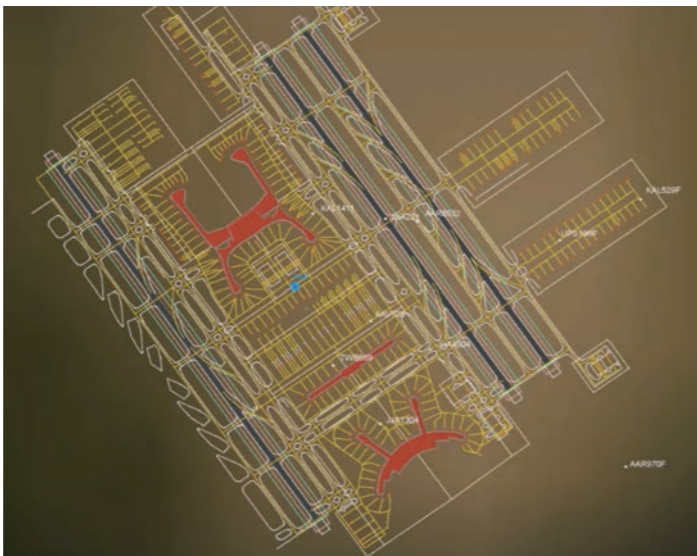


[정상일 주기장(TI) 운영 현황]



[저시정일 주기장(TI) 운영 현황 (장시간 점유)]

<그림 5> 인천공항 TAAM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예시



결론 및 맺음말

2019년 인천공항에서 RVR(활주로가시거리) 550m 이하의 저시정 발생일은 총 50일(1년 중 약 14%)이었으며, 그 중 저시정 심각단계에 해당하는 날은 이틀(1월 23일, 12월 10일 - 1년 중 약 0.5%)로 발생빈도가 매우 낮았으나, 저시정은 공항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악기상으로 인한 공항의 항공기 수용능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상적인 공항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산업기술연구원에서는 저시정 상황별 수용량 분석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저시정

뿐만 아니라 태풍, 강설, 낙뢰 등 악기상 상황별 공항의 수용능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항공기 지상지연 및 여객 불편 감소,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용량 조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 밖에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은 「데이터 기반 항공교통관리 기술개발」 R&D 사업(2021.4~2025.12)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여 '항공교통 성능평가 및 목표관리 시스템'과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스템'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사의 항공교통 분야 연구역량 강화는 물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가 항공교통시스템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기안내통합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한

안세기술

창업 28년 차인 안세기술은 국내 ICT엔지니어링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한 주기안내통합시스템은 지난 3월부터 인천공항에 적용되었다.



—
최근 국산화에 성공한
주기안내통합시스템(IDGS, Integrated
Docking Guidance System)
개발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 제방빙 시스템 연구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

Q. 안세기술은 어떤 기업입니까?

안세기술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컨설팅, 설계, 감리 등 ICT 엔지니어링과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지적자원 등을 빅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까지 디지털화의 선두주자로서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안세기술의 주력사업은 무엇입니까?

안세기술의 주력사업은 ICT 분야의 컨설팅,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로서 항공분야, 철도분야, 항만분야, 국방분야, 스마트도시 및 도로교통분야까지 사회 전반에 스며든 대부분의 ICT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입니다. 특히 주력서비스를 기반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함께 제품 및 솔루션 등 공항분야 핵심역량을 추출해 연관사업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를 도모하여 산업간 융합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Q.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세기술은 첨단 ICT 하드웨어 설계 기술과 이를 구동 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기구구조(풍설, 풍량, 진동 등), 제어보드(Control Board), EMC(전자파간섭회피), 전원회로 등을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DB 설계, HMI(Human-Machine Interface) 등의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화에 성공한 주기안내통합시스템(IDGS, Integrated Docking Guidance System) 개발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 제방빙 시스템 연구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자체 보유한 특허로는 "항공기 기중판별 및 주기유도시스템 및 방법" 등 22건이 있습니다.

Q.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인천공항 개항 전인 2000년도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TRS) 구축 감리용역을 시





Q. 주기안내통합시스템은 어떤 장치입니까?

안세기술이 개발한 주기안내통합시스템 AIDA-1(ANSE Intelligence Docking Assistance-1)은 3D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주기장에 진입하는 항공기를 스캔하고 항공기 고유의 특징을 항공기 프로파일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항공기의 모델을 식별하고 항공기의 Nose를 집중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AIDA-1은 조종사가 항공기를 주기장에 안전하게 접현하도록 정지점까지의 잔여 거리 및 방향, 속도 등의 항공기 이동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합니다. 조종사는 제공된 시각정보를 통해 항공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주기장에 접현할 수 있습니다. AIDA-1은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영되며, 주-야간 어떠한 날씨에서도 문제없이 동작함으로써 현장운영요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Q. AIDA-1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AIDA-1의 전광판(Pilot Display Unit, PDU)은 약 150m에서도 조종사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10,000nit(cd/m) 이상의 밝기를 가진 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타사의 제품군보다 매우 밝고 뚜렷한 시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로 96cm, 세로 112cm 크기의 PDU는 조종사에게 접현 시 필요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며, 항공기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현하도록 정지점 전 30M부터 잔여거리, 좌우 편차 안내가 주된 목적입니다. 그 외 속도, 긴급정지 등의 부가적인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마살라(항공기 유도원)의 안내 하에 항공기를 게이트에 주기 하듯이 AIDA-1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주기하게 됩니다.

Q. 국내공항 및 해외 공항 납품이 기대됩니다. 판로 및 수출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개발한 제품이 그만큼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공항에 먼저 공급하여 실적을 쌓을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판매를 늘려가는 '안세기술 판로개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GS(Good Software) 인증 국산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는 국가 인증제도로서 제품이 사용될 실제 운영환경에서 반복적인 동작 테스트 시스템을 거쳐, 해당 제품(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 제품설명서)의 품질을 인증

항공기 시각주기유도과정



PDU로부터 약 150m에서 항공기 감지 및 모델식별



정지선 30m부터 잔여거리 제공 (0.1m 단위로 잔여거리 표시 가능)



PDU로부터 6~8m부터 정지선 설정



속도, 긴급정지 등의 부가적인 정보를 표시 가능

'함께하는 판로개척'으로 정부지원사업 및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 이미 제품구매를 문의해온 업체 및 기관들과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해외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며 구축된 해외영업망을 통해 함께 세부적인 실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판로개척으로 국내외 공항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담당 기관 및 관련 업체에 브로슈어를 보내 주기안내통합시스템을 소개하고 있고, 국내외 공항들의 제품교체 시기 및 신규구축 시기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에이전트와 안세기술의 엔지니어링사업 현지 출장 인력 등을 통해 적극적인 판로개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술 개발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2015년도에 개발과제를 조건부로 성공한 이후 2018까지 5년여간 이어진 상품화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137개 항목에 대해 반복적인 기능 동작 시험을 거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GS인증*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사에서 주관한 제3자 현장 적합성 검증을 통과하며, 납품이 가능한 상품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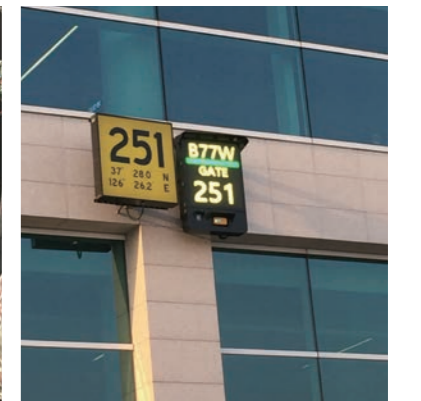
Q. 사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1993년 창업 이후 3년이 지났을 때 미군

으로부터 인계받은 '포항 로란-C 시스템' 개량사업을 진행 중이던 147미터 안테나가 시공 후에 태풍으로 인해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앞이 깜깜할 정도로 막막하였지만 이후 꼼꼼한 원인조사를 통해 재해로 인정받고, 해외 반입자재 등을 항공화물을 이용하여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 최단시간 내에 원상복구를 함으로써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개량사업을 마무리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낸 일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그 답 또한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안세기술이 추구하는 기업의 지향점입니다.

Q. 공항산업에서 안세기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공항운영에 필요한 지상관제시스템의 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 최고의 토탈 솔루션 업체가 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2~3년 이내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공항에 IDGS를 공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3년차부터는 해외 수출을 시작하여 10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을 3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개발에 착수하는 스마트 제방빙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추가로 계류장 관리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공항의 지상관제 관련 시스템을 제품군 화하여 대부분 외산에 의존하던 항공관련 산업에서 국산 솔루션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 EPC(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인증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

10월 5일

청각 장애인을 위한
휴대폰 문자 안내 서비스

청각 장애인의 인천공항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휴대폰 문자 안내 서비스가 개시됐다. 휴대폰을 이용해 인천공항 헬프데스크(1577-2600)로 공항 이용 관련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 실시간으로 문자 답변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전용 헬프폰, 점자 안내책자, 휠체어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장애인 편의 증진 서비스를 통해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친화적 공항으로 성장했다.



10월 17일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엑스에서 진행된 '2011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에서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녹색성장 전략 수립,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도입, 온실가스, 에너지목표 관리제 참여 등 지속적인 녹색경영을 추진해 2010년에만 26억7천6백만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다.



10월 21일

인천공항 대표 사회공헌,
'인천하늘고' 비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종사자의 정주 여건 마련과 인천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설립한 '인천하늘고'가 10월 모든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인천하늘고는 인천 지역의 첫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과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인천하늘고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학교로 도약하고 있다.



9월 6일

풍성한 한가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눠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명절의 기쁨을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인천공항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초청해 추석 한복을 선물하고 송편 빚기와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인천지역 빈곤아동과 독거노인이 함께하는 100개 가정을 방문해 추석선물을 전달하여 풍성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9월 22일

친환경 녹색 항공물류 실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린카고허브 3차 사업을 통해 인천공항 취항 외항사에 친환경 특수 포장 비닐의 구매 비용을 지원했다. 친환경 특수 포장 비닐은 기존 비닐에 자외선 안정제와 광분해 활성제를 첨가해 내구성 등 기존 비닐의 장점을 가지면서 태양광선의 자외선으로 자연 분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부터 그린카고허브 사업을 통해 연간 28,000톤의 CO₂를 절감했다.



9월 27일

IT서비스 분야 국제표준 인증 획득

인천공항이 아태지역 공항 최초로 IT서비스 전 부문에 대한 ISO/IEC 20000 인증을 획득했다. ISO/IEC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가 공인하는 IT서비스 관리체계 국제표준 인증이다. 인천공항은 IT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장애 발생률과 소요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였다.



10년 전, 인천공항 속으로

과거의 오늘, 인천공항은 어떤 일로 분주했을까? 타임머신을 타고 2011년 9월과 10월 인천공항으로 떠나보자.

2011년

지속가능성을 위해 변화하는 세계공항

ESG가 세계 산업의 주요 화두가 되면서 공항도 이를 위한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위해 플라스틱 병 음료 판매를 제한한 샌프란시스코공항과 바이오 메탄 버스를 운용하기 시작한 뮌헨공항의 사례를 살펴본다.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 플라스틱 병 음료 판매를 제한한 샌프란시스코공항

2021년 4월 샌프란시스코공항은 플라스틱 병에 든 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플라스틱 프리'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공항은 2019년 8월,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또는 무균 종이로 포장된 일회용 물을 제공 또는 판매금지한 바 있다. 확대 적용되는 '플라스틱 프리' 정책은 물 뿐만 아니라 탄산음료, 차, 주스를 포함한 플라스틱이나 무균종이로 포장된 모든 음료 판매를 금지한다. 샌프란시스코공항 디렉터인 이바로 사테

로는 이번 발표에 대해 "제로 웨이스트*를 달성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2년 전 플라스틱 없는 미래를 향해 내디딘 첫걸음에 이어, 다음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의 성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비즈니스 커뮤니티 덕분이었으며, 공항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게 격려해준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샌프란시스코공항은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 공항 내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항 내 음식점에서는 퇴비화 가능한 일회용 용기만 쓰고 있다. 폐기물 특성 조사에 따르면

*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0(Zero)에 가깝게 최소화하여,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기물이 없도록 하는 운동



* CM-Fluids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바이오 메탄을 연료로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운송 차량 부품을 생산하는 독일의 신생 기업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매립지로 보낸 폐기물의 33%는 식품 또는 음료 및 식품 포장용기였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플라스틱 혹은 무균 종이로 포장된 물 판매를 금지하는 폐기물 처리 제로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당시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는 매일 물이 1만 병 이상 판매되고 있었다. 이번에 확대 시행된 정책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생산 방식을 최대한 피하게 되었다. 매년 매립되던 플라스틱 음료수병 1백만 개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공항은 공항 소매업체에게 플라스틱병을 대체할 지침을 제공하고, 공항 전역에 100개의 식수대(hydration stations)를 설치하여 여행자들에게 자사용 병을 가져오도록 장려하고 있다.

바이오 메탄 버스를 운용하기 시작한 뮌헨공항

독일가스산업협회(The Association of the German Gas Industry)는 바이오 메탄을 연료로 여객 버스를 시범 운행한 뮌헨공항에 2020년 '모빌리티&수송' 부문의 혁신상을 수여했다. 뮌헨공항에 따르면, 이번 여객 버스는 독일의 스타트업 회사인 CM-Fluids*와 협력하여 개발한 것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스 혁신'을 이루었으며, 미래에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구현해냈다고 한다. 이번 여객 버스는 뮌헨

공항의 유망한 파일럿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디젤 연료를 사용했던 여객 버스에 바이오 메탄을 사용하여 환경친화적 주행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여객버스에는 CM-Fluids가 특허받은 'CMF drive'가 장착되었다. 여객 버스는 연소기관에 의해 구동되며, 향후 재생산된 바이오 가스를 연료로 공급받게 될 것이다. 엔진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버퍼(Buffer) 배터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며, 버퍼 배터리는 버스의 전기 구동축에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바이오 메탄을 연료로 성공적으로 공급한다면 지금보다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공항이 될 것이다.

'CMF drive' 시스템의 장점은 버스 운행 시간이 길거나 출발 및 정지가 빈번한 버스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동에너지를 복구하여 버퍼 배터리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기도 하며, 기존 전기버스와 달리 연료탱크 1대로 800km까지 이동할 수 있다. 독일 가스 산업 관련 관계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기후 보호에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량의 재생 에너지 전환은 뮌헨공항의 기후 전략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전략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여객 버스도 전환시킬 예정이다.



ESG 경영을 향한 세계 공항의 노력

기업과 기관의 시선이 환경과 사람, 사회를 향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방면에서의 고민이 요구되는 요즘. 세계의 공항, 항공사에서도 그들만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ESG 경영과 관련된 각 국의 모델을 찾아보았다.



발자국발전소 에너지시스템 # 항공사의 탄소전환선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국제공항 내에는 5평 남짓한 소규모 발전소가 있다. 바로 '에너지 스텝'이다. 전기가 발생하는 특수 마그네딕이 바닥에 부착된 이 통로를 지나가면 1터미널과 3터미널 사이의 조명을 작동시키는 정도의 전력이 생산된다. 이 공항을 거점으로 사용하는 아랍에미리트 제2의 항공사 에티하드항공 역시 친환경 운영에 동참했다. 이들은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탄소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는 2019년 순 배출량의 절반 수준으로, 2050년까지는 제로화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가장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202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80%까지 감축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공장과 협력해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친환경 항공 연료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FAB(First Abu Dhabi Bank, 아부다비 제1은행) 등에서 1억 5천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부정부패경계태세 # 공항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세보고서

공정한 윤리경영의 사례로 호주 시드니공항을 소개한다. '부정이 곧 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시드니공항은 각종 사기와 뇌물을 비롯한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책, 이사회 임원 임명 절차, 사내 양성평등 실태 보고와 내부 고발자 정책까지 숨기는 내용 없이 모두 공개하고 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자산과 관련된 투명성에 대한 언급이다. 공항이 여러 기관, 기업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특히 주의하는 모습인데, 이런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매년 그 해의 '조세 거버넌스 성명서'와 '세금 명세서 가이드'를 게시해준다. 성명서에는 공항 이용객 수와 수익, 일자리 창출 등 그 해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 분석이 주된 내용이며, 세금 명세서는 명세서 그림과 함께 각 항목별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마치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처럼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처럼 전 세계 누구든 클릭 몇 번으로 이 공항의 경영상태와 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한 경영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분서주 땀 흘리는
공항가족들의 이야기
—
귀를 기울이다

사람과 하늘

Listen to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공항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묵묵히 유지 보수 업무 해나가는
공항가족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인천공항만의 맞춤형 서비스를 알아보고
가을에 공유하고 싶은 노래와 글귀를 들어봤습니다.

더 오래오래! 더 튼튼하게! 건축물 수명연장의 모든 것!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시설그룹 부대건물 건축시설팀

부대 건축이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다가오지만, 활주로와 하늘길의 컨트롤타워인 관제탑, 계류장 관제탑, 제1합동청사 및 공항청사 제2합동청사의 건축적 부분을 총괄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건축물의 기능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건축물 이용자의 시점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부대건물 건축시설

부대건물 건축시설 사업소는 공항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 지역에 널리 분포해 있는 총 349개소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다. 제1·2 여객터미널을 제외한 인천공항의 대부분 건물과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다. 부대 건축 1:2:3팀, 행정지원팀 총 4개로 나뉘는데, 관리하는 지역별 구분에 따라 건축 1팀은 관제탑과 AICC, 건축 2팀은 제2합동청사와 제2계류장, 건축 3팀은 합동청사 및 공항청사 내외의 건물과 건축물에 대한 점검·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건축분야 시설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시설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건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시각각 점검업무를 수행하며, '기존 건축물이 원래 모양에서 변형은 없는가?', '사용자가 건축물을 이용할 때 위험 요소는 없는가?'를 자문하며 보는 눈썰미가 중요하다. 건축물이라는 게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건축물 자체에 하중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서서히 침하되고, 변형되는 크리프 변형(creep strain)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시각각 매서운 눈썰미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편의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건물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눈썰미이다.

더 오래오래 더 튼튼하게!

시설유지관리업무는 건축물 수명연장과 사용상 한계점과 싸움이다. 건축물 안에 사람이 상주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건물 내부에 건축물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문과 문의 손잡이, 매년 걸어 다니는 복도의 바닥과 바닥 위에 미관용 타일류들 모든 게 수명이 존재한다. 쓰다 보면 마모되고, 마모되면 교체해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수명연장과 사용상 한계점과 싸움이고 부대건축팀의 임무이다.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관리

- **운영시간** 09:00 ~ 18:00
*태풍, 우천시 당직근무 및 민원접수 ~ 20:00
- **위치**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역 3번 출구
- **문의** 032-741-7379

부대건축팀은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까?

부대건축팀은 주로 건물을 이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의 초점에 맞춰서 움직이게 된다. 제일 중요한 건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안전상 문제가 없게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우천 시에는 건축물의 누수 여부를 체크하고, 누수 부위 보수를 진행하여 건축물의 수명을 지켜주고 건물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안전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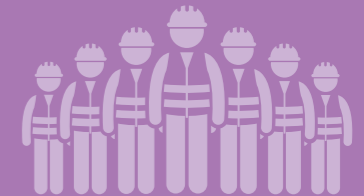
가지각색의 팀원들이 모여 만드는 팀워크

부대 건물 건축시설팀은 팀원들 개개인이 전문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이 가지각색이다. 건축분야라는 대분류 안에 소분류 자격증인 도장, 방수, 미장, 타일, 조적, 용접, 유리 시공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개개인마다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 다르고 현장 업무를 진행할 때 이런 점들이 장점으로 부각된다. 그날 작업 현장에 맞는 적합



— 부대건축팀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번갈아가며 체험하고, 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서로가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부대건물 건축시설팀이라 자부하고 있다.

—



한 기술을 가진 팀원이 진두지휘하여 팀워크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과 또 다음날 현장에서는 어제 진두지휘를 받았던 팀원이 다음날에는 현장 리더가 되어 진두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부대건축팀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번갈아가며 체험하고, 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서로가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부대 건물 건축시설팀이라 자부하고 있다.

최대의 위기 최고의 대비!

어떤 직종이나 업무상 최대의 위기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2020년도 8월 중순, 태풍 경보가 발효되고 시간당 50mm 정도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부대 건물 건축시설 3팀이 관리하는 공항청사 건물이 누수로 인해 비상이 걸리고 강우량이 상상 이상

으로 많아 옥상층에 물이 차올라 건물 내부에 물이 흘러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도 태풍 정도와 강우량을 기상대와 미리 연락하여 예측하였고, 근무자를 최대한 배치하고, 수방자재(장화, 모래주머니, 우의) 등을 미리 준비하여 사전에 비상상황을 대비하였다. 비상연락체계 편성과 재해 시 복구와 수습을 속히 이행할 수 있게 역할분담을 하여 대비한 덕에 최악의 상황은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체계적인 편성과 사전 준비도 중요하지만, 부대 건물 건축시설 1, 2, 3팀 근무자 모두가 고민 없이 달려와 수습을 도와준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느낄 수 있다.



“인천공항 부대건물, 우리가 고친다!”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시설그룹
부대건물 건축시설팀 정학민 팀장

남보다 먼저 공항에 도착한 정학민 팀장의 삶은 새벽부터 바쁘다.
인천공항 부대건물 곳곳을 돌아보며 어제와 달라진 점이 있나 유심히 살핀다.
25시를 살아가는 정학민 팀장의 하루를 들어가 본다.



Q. 자기소개와 간단한 업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관리 3팀 정학민 팀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14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천공항 부대건물의 노후설비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도장 업무를 맡고 있구요.

Q. 도장 업무란 무엇인가요?

건축 마감재를 완벽히 시공하더라도 하다 못해 빗물로도 하자가 발생합니다. 끊임없는 빗물과 햇볕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경우,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지고 그 틈으로 빗물이 조금씩 스며들면 콘크리트에도 부식이 생깁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페인팅으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이 안 되도록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Q. 인천공항 입사한 계기와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 졸업 후 건축에 관심이 있어 아파트, 건물 등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일을 했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인천공항을 왔는데, 공항의 자연스런 색상과 부드러운 곡선의 아름다움에 반해 인천공항 입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입사 20년이 되었습니다.

Q. 2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20년 전,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 부족했을 때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계단 옆으로 장애인 도로를 만들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공항을 찾았던 자녀가 편하게 휠체어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가끔 작업복을 입은 우리들을 피하는 사람들 시선에 조금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손길로 공항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Q. 직업 선택을 잘했다 느끼실 때는 언제였나요?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는 언제나 공사장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 단독주택 공사장 등등. 그러한 공사장에는 늘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인천공항 현장에서는 팀원들의 단합으로 무사고로 근무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동료애와 소통이 잘 되고 있어 하루 8시간 근무가 즐겁습니다.

Q. 인천공항 시설 유지 관리팀에 동참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현장경험이 중요합니다. 학교 졸업 후 현장 경험 없이 입사하게 되면 힘들 수 있어요. 또한, 실내가 아닌 외부 작업이 많다 보니 더위나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의지도 중요합니다. 좀 더 빠른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자격증은 필수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기사, 건축기능사, 건축도장 기능사 등이 필요합니다.

—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가끔 작업복을 입은 우리들을 피하는 사람들 시선에 조금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손길로 공항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

공항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직무훈련 프로그램 개설

‘공항 특화 내배카(내일배움카드)로 찾아가는 직무훈련’ 9개 과정이 개설되었다.
공항 종사자 및 구직 희망자 대상 전문 교육을 통한 항공 산업 일자리를 지원한다.



공항 특화 내배카로 찾아가는 직무훈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용노동부 및 인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공동으로 ‘공항 특화 내배카(내일배움카드)로 찾아가는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공항 종사자 및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번 직무훈련 프로그램은 △식음료 메뉴개발 △물류인력 △1인 크리에이터 및 마케팅 전문가 △뷰티&마케팅 △웹툰 △커피 바리스타 △무역유통 △뷰티코디네이터 △항공기 기술자 등 구인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9개의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각 교육별 모집기간 등 세부사항 확인 및 참가신청은 전용 홈페이지(QR코드 참고)에서 가능하며, 공항 종사자(퇴직/휴직자 포함) 및 공항 구직 희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며,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우수 교육 수료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항공산업 일자리 프로그램

이번 직무훈련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구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면세점, 식음 및 항공사 등 7개 업종 대표 기업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공항 유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업종별 휴직 및 퇴직 현황 역시 고려해 교육 과정을 설계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업에서 멀어진 휴직자들의 업무 연속성을 제고하고, 공항 근무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항공 산업 일자리 회복에 힘쓰는 계획이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직무훈련 참가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 일자리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인천공항 일자리 생태계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공항 일자리 회복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월에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신종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라운지 커뮤니티센터’ 1호점을 열었다. 6월에는 대전 동구에도 2호점을 열었다. 센터에서는 실직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인천공항 종사자나 50대 안팎 시민들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t's all for you.

인천공항 맞춤형 서비스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인천공항만의 맞춤형 서비스의 세계로 초대한다.



Part 1.

임신부·유아·어린이 동반고객

임신부·유아·어린이 동반고객 공항 내 맞춤서비스

임신부·유아·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로 공항 내 모든 안내데스크에서는 무료로 유모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아와 보호자, 그리고 임신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유아휴게실은 영유아를 위한 수유실과 기저귀 갈이대, 세면대, 젖병소독기, 정수기, 체중계, 손소독제 등이 비치되어 있어 유아,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8세 미만의 어린이 여객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도 운영하고 있어, 보육활동에 최적화된 인천공항만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아 휴게실 임시 운영 중단

보호자 비동반 소아(UM) 서비스

항공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 여행이 불가하나, 대략 만 5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없이 항공 여행이 가능하며, 대부분 항공사는 이런 어린이를 위한 '보호자 비동반 소아(Unaccompanied Minor)'라고 하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M 서비스는 출발지 탑승수속부터 전담 직원이 항공기 기내까지 동행하여 승무원에게 안

내하고, 도착지에서도 동일방식으로 전담 직원이 기내에서부터 마중 나온 보호자에게 안내해 주는 서비스이다. 어린이들 혼자서도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고, 세심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자녀들의 먼 친척집 방문이나 어학연수 갈 일이 있다면 UM서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자.

임신부·유아·어린이 동반 고객 항공사 기내서비스

유아 요금으로 탑승한 아기에겐 좌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탑승하는 항공사에 미리 아기 바구니를 신청하면 편안한 여행이 가능하다. 출발 48시간 전까지 신청한 탑승객에 한해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항공기 한 대당 4개 정도 일반석 맨 앞 열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미리 신청해야 하며, 수량이 한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다. 또한, 소아 운임을 지불하고 항공권을 구입한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 어린이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사별 중장거리 노선에서 사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아용 시트 및 안전벨트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유아의 경우 유아식이라는 특별 기내식이 제공된다. 출발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액상 조제분유나 이유식이 나온다.





Part 2.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교통약자 동반 고객 서비스

인천공항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교통약자란 보행상 장애인(1~5급), 유소아(만 7세 미만), 고령자(만 70세 이상), 임신부, 항공사 병약승객(휠체어, 항공침대, 의료용 산소 등 필요여객)이 그 대상이다. 공항 내 카운터 위치에 따라 가까운 단기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과 제1여객터미널 전면도로(3번, 12번 출구 근처), 제2여객터미널 전면도로(2번, 7번 근처)에 차량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터미널 내부 가장 가까운 안내데스크로 연결되는 헬프폰 서비스와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여객터미널까지 휠체어 이용객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무료로 휠체어 리프트 서비스도 제공된다. 경차, 장애인, 국가 유공자의 경우 할인금액으로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 출국객 맞춤형 전동차

PICK UP서비스를 통하여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 차량은 주차장 출구의 유인부스를 통해 장애인증을 확인 후 일반주차요금의 50% 할인받을 수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인천공항만의 알짜배기 서비스를 통해 현명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해 보자.

교통약자우대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서비스

교통약자(동반여객 3인 포함)는 교통약자우대 전용출구를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본인이 이용하는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용가능 대상임을 확인 받고 '교통약자우대 카드'를 받아 교통약자우대 전용 출국장을 이용하면 된다.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 내 화장실마다 최소 1실의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넓은 출입구와 내부공간, 버튼식 자동문, 비상벨, 센서작동 물내림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용이성을 높였고, 안내데스크에서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브로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ip

교통약자 서비스 센터

- ☎ 문의 1577-2600
- 🕒 운영시간 08:00~20:00
*운영시간 변동가능
- 📍 위치 제1여객터미널 25번, 29번 게이트 인근
- 🚗 주요업무 휠체어, 유모차 대여, 교통약자용 전동차 대기 등

휠체어 리프트 서비스

- ☎ 문의 032-741-3217
- 🕒 소요시간 15분 내외
- 🕒 운영시간 9:00 ~ 22:00
- 📍 이용방법 평일 사전 예약
*차량 이동시간 소요,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하여 이용 전 해당 연락처로 사전 문의 필요

전동차 PICK UP 서비스

당일 공항 도착 전 헬프데스크(1577-2600) 또는 현장 안내데스크, 헬프폰으로 접수

서비스제공구간

- 일반지역 3층 각 출입구~체크인 카운터까지
- 면세지역 3층 각 출국장~탑승게이트까지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따라 항공사 카운터에서는 별도의 이동서비스를 제공, 항공사마다 이용방법이 상이 할 수 있으나 사전에 항공사로 문의.

장애인 콜택시

- 인천교통공사 장애인콜택시
☎ 1577-0320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 1588-4388(02-2024-4200)



Part 3. 반려동물 동반고객 맞춤형 서비스

반려동물 동반 유의사항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려동물! 인천공항에 동반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 소중한 나의 반려동물만큼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다른 공항 이용객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즐거운 공항 사용법을 알아보자. 인천공항 내 반려동물 동반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전용 케이지를 사용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목줄(50cm 내외) 또는 유모차 이용이 가능하다. 맹견은 출입국 목적으로만 동반가능하며, 전용케이지를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변 처리는 동반인이 즉시 처리하여 다른 공항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며, 문제 시 공항 이용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Tip

반려동물 동반 가이드

반려동물 동물보호법상 맹견을 제외한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그 외 생동물(동물보호법 상 맹견 포함)은 출입국 목적으로만 동반 가능하며, 전용 이동장치(케이지)는 필수

*보조견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목줄 가능)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바일러

인천공항 상주직원이 사랑하는 맛집 ‘오므토포마토 다이닝’

출국하기 전 매우 배가 출출하고, 떠나기 전 이것저것 맛보고 싶고, 또 맛까지 챙겨서 든든히 한 끼를 하고 싶은 것이 여행자의 마음이다. 하지만 이 넓은 공항에 어디가 맛집인지 여행자는 당연히 잘 모를 것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인천공항 상주직원이 사랑하는 맛집 ‘오므토포마토 다이닝’을 소개한다.



전국에 단 한 곳, 오므토포마토 다이닝 인천공항점 오므토포마토 다이닝은 전국에 단 한 곳, 인천공항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맛집이다. 2015년에 오픈해서 무려 6년째 운영 중인 곳으로, 면세구역에 들어가기 전 3층 출국장에서 엘리베이터로 한층 만 올라가면 4층 식당가에 ‘오므토포마토’를 찾을 수 있다. 오므토포마토 매장 이름은 “오므라이스”+“토마토”가 합쳐진 뜻으로, 주 메뉴는 오므라이스, 커리, 파스타, 돈가스 등이다. 일본 음식인 오므라이스 등에 베이스를 두고 있지만 전 메뉴를 한국인 입맛에 맞게 다시 해석한 퓨전 요리 레스토랑이다. ‘오므토포마토’ 뒤에 다이닝이 붙은 이유는 기존 ‘오므토포마토’에 고급화된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4층에 위치해 있다 보니, 창가에 앉으면 3층

출국장이 전면 유리창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항의 모습을 함께 보며 입과 함께 눈도 즐거운 식사가 가능하다.

상주직원이 사랑하는

불타는 치킨도리아, 그린·레드커리
어떤 메뉴를 먹을지 고민 된다면? 상주직원이 많이 선택하는 BEST 메뉴를 선택해 보자. 첫째는 불타는 치킨도리아, 둘째는 비프스테이크 그린커리, 셋째는 레드커리다. 직원들이 자주 선택하는 메뉴로 든든함에 맛을 더했다. 불타는 치킨도리아는 필자도 매우 좋아하는 메뉴로 종종 매운 게 당길 때 찾게 된다. 매운 불닭이 들어간 도리아에 치즈를 얹은 메뉴로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메뉴다. 비프스테이크 그린 커리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먹고 나면 다시 생각나는 감칠맛이 느껴지는



마성의 메뉴이다. 특히, 커리류는 맵기 조절도 가능하데 무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참고로 신라면 맵기는 2 단계(★)이다.

점장님이 추천하는 크림소스, 타이소스 오므라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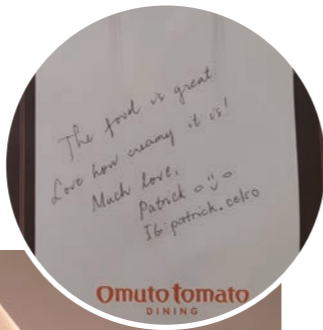
점장님이 자신 있게 고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크림소스'와 '타이씨푸드소스'가 가미된 오므라이스 메뉴들이다. 이 두 메뉴의 공통점은 바로 매장에서 직접 만든 소스를 베이스로 쓴다는 점이다. 먼저, '크림소스' 메뉴는 단호박&고구마 오므라이스, 옥수수베이컨 오므라이스가 있다. 크림이라고 하면 보통 느끼할까 걱정할 수 있는데, 오모토마토의 크림소스는 우유와 크림베이스의 최상의 배합 비율을 찾아 소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속에 부대끼지 않고 느끼하지 않다.

그다음 강추 메뉴인 '타이 씨푸드 소스' 메뉴는 타이 씨푸드 오므라이스와 타이 치킨 오므라이스가 있다. 풍부한 해물과 치킨이 팟시유소스를 만나 맛이 환상적이다. 타이 씨푸드 오므라이스 역시 직접 만든 수제 소스를 사용하며, 굴소스 베이스에 매콤 달콤한 맛을 가미해 태국 느낌은 한껏 살리고, 한국인이 요즘 좋아하는 단짠단짠 입맛을 사로잡는다.

주기적인 신메뉴 런칭

오모토마토에 가보면 매번 새로운 메뉴가 나와 있어 도전 욕구를 자극한다. 신메뉴는 점장님이 직접 본사와 함께 개발하며, 맛이 최상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방법을 시도해본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개발된 것이 크림소스와 타이씨푸드소스다. 특히 메뉴에 들어가는 고기는 최상의 방법을 찾아 연구 및 직접 재우고 질 좋은 식재료를 구하

외국인 손님이 남기고 간 글



러 발로 뛰었다고 하니 더욱 신뢰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몽골리안 누들과 몽골리안 라이스가 출시되었다. 점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출시한 메뉴로 몽골리안소스와 해산물, 소고기가 어우러진 요리로 역시나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매콤한 맛이 특징이다. 몽골 사람들도 맛있게 먹는다고 하니 정말 말이 필요없다. 몽골리안 메뉴 외에도 점장님이 아직 개발 중인 메뉴가 아주 많다고 하니 기대해 본다.

맛은 기본, 최상의 서비스와 친절을 제공

유명 포털에 '오모토마토'의 평점은 4.5이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는 단연 맛은 기본이고, 최상의 서비스와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 마인드를 지닌 직원들이 아닐까. 리뷰를 보면 맛은 기본이고, 직원들이 친절해서 더 맛있게 먹었다는 평들이 많다. 점장님에게 물어보니 맛은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이고, 거기에 최상의 서비스와 친절을 제공해드리려고 전 직원이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 단골들이 많아서 오시면 얼굴을 기억하고 챙겨드리는데 손님들이 신기해하신다고 할 정도다.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고 물어보았더니, 외국인 손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 테이블에 세팅된 종이에 남기고 간 칭찬 글이었다고

— 오모토마토에 가보면 매번 새로운 메뉴가 나와 있어 도전 욕구를 자극한다. 신메뉴는 점장님이 직접 본사와 함께 개발하며, 맛이 최상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방법을 시도해본다고 한다. —



한다. 그런 글을 보면 보람 있고, 오모토마토가 제공하는 음식과 서비스 품질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포장 주문도 OK, 푸짐한 오모토마토

오모토마토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스마트 주문 서비스'도 가능하다. 네이버 주문으로 편리하게 주문하고, 매장에 가지마자 기다림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되었다. 메뉴가 너무 고민된다면, 위에서 잠깐 언급한 점장님 추천 메뉴가 따로 있으니 한 번 시도해보자. 마지막으로, 오모토마토를 찾는 상주직원들을 위해서 단품 메뉴 20% 할인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많이 할인해주는 매장 찾기 쉽지 않다. 또 3번을 먹으면 에이드를, 6번을 먹으면 샐러드, 10번을 먹으면 1만원 이하 메뉴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은 꼭 챙기도록 하자!

근무 전 또는 출국 전 오늘 나의 한 끼가 고민된다면, 맛있는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아낌없이 제공하는 '오모토마토 다이닝'으로 가보자. 분명, 그날 제일 잘 먹은 한 끼가 될 것이다.

오모토마토 다이닝

- 📍 위치 제1여객터미널 4층 일반지역
- 🕒 시간 매일 08:00~20:00
라스트오더 19:30
- ☎ 문의 032-743-5050
- 📍 네이버에서 미리 주문 및 포장 주문 가능



Vietnam

시련을 이겨낸 역사를 가진

베트남 Vietnam

베트남인은 스스로 근면, 성실, 인내, 친절, 용감성 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동안의 끊임없는 외침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국민'으로 자신들을 표현하며 무엇보다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기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하고 있는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지형 특성상 남과 북의 기후 차이가 크다. 전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800mm정도이고 주로 우기 때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다. 호치민시를 비롯한 남부지역에는 건기(11월~4월)와 우기(5월~10월)가 있으며 수도 하노이 등의 북부지역에는 미묘한 사계절 변화가 있다. 한국의 겨울에 해당하는 연초와 연말의 날씨는 한국의 늦가을과 유사하다.

전통의상

베트남 여성들이 즐겨 입는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는 긴 옷이란 의미이며 19세기부터 입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6년 사회주의 정부가 노동에 부적합하고 퇴폐적이라고 착용을 금지했다가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추진 이후 완화되었다. 최근에는 각종 예식에서 즐겨 착용하고 여고생들의 교복이나 주요 기업체의 제복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언어

베트남의 공용어는 베트남어이며 4종의 소수민족 언어를 법률상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어에는 6성조가 있어 발음의 장단, 고저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자어의 비중이 60%를 차지한다. 베트남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사용했으나, 8~9세기 경에는 한자의 뜻과 음을 차용해 만든 쓰놈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는 한문과 쓰놈은 쇠퇴하고 현재의 베트남어가 국어로 자리 잡았다.

Info

- 수도 하노이
- 통화 베트남 동 VND
- 언어 베트남어
- 인구 약 9,260만 명 (세계15위)
- GDP 약 3,406억 2백만 달러 (세계 36위, 2020년 IMF 기준)





가족들과 다시 가고 싶은 베트남

제2여객터미널 신라면세점 바비브라운 Make-up Artist 최소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인 지금, 공항가족에게 펜데믹 상황이 종식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여행지를 물어보았다. 함께가고 싶은 사람과 사진합성으로 세계일주를 떠나보자.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라면세점 바비브라운(Cosmetic)에서 근무하는 Make-up Artist 최소영입니다.

Q.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는 2018년 친구 줄리와 동남아여행 중 방문한 베트남과 2019년 회사에서 해외교육으로 다녀온 베트남에서 즐거운 기억들이 아직까지 향수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는 가족들에게 베트남 문화와 음식들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5월부터 가족이 된 반려견 로하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셋째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인 베트남을 직접 방문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느끼고 싶습니다.

Q. 베트남 여행 에피소드가 있다면?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도 비슷한 친구 줄리와 함께한 동남아여행이었습니다. 각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다녀온 10박 11일 여행을 통해 베트남, 태국 총 2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도착한 베트남 하노이에서 친구와 카페에서 앉아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던 현지인들은 경량패딩을 입고 있더군요. 여행을 하던 3월 당시엔 30도를 웃도는 기온이었고, 저희는 나시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말이죠.

Q. 해외교육은 어떠셨나요?

제가 다니는 엘코잉크의 주요 복지 프로그램으로 년마다 진행되는 해외교육(BEM, Brand Education Meeting)에 다녀옵니다.

2019년 베트남 다낭으로 4박 5일간 진행된 BEM에서 메이크업 외에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MBTI 성향 분석과 팀원들과 함께 시간 내에 자전거 조립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프라이빗 수영장이 있는 럭셔리 풀빌라 숙소에 묵게 되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넘쳐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Q. 여행을 통해 기대되는 것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춰 살아가기 위해, 최근들어 경제기사와 관련 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향후 5년, 10년 뒤 베트남이 급성장할 것이란 글을 보았습니다. IMF 이전의 한국의 모습과 닮아있는 베트남이 다가올 미래에 한국만큼 발전해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싶습니다.

Q.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베트남 하노이 맛집 분보남보에서 분보(비빔국수)를 다시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격려해 주신 최혜영 코디님께 사보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향후 5년, 10년 뒤 베트남이 급성장할 것이란 글을 보았습니다. IMF 이전의 한국의 모습과 닮아있는 베트남이 다가올 미래에 한국만큼 발전해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싶습니다.
—





즉문즉설
 공항 가족에게 묻고 답하다
설문 기간 7/27~8/1
설문 인원 인천국제공항보안(주) 12명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속
 서정적인 가사는 뭐가 있을까?**

그중에 그대를 만나(이선희, 2014)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 꿈을 꾸듯 서를 알아보고 /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가족사진(김진호, 2014)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 가족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 내가 깨닫기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여섯번째 토요일(정우, 2019)

네가 두고 간 안경 여전한 눈빛만큼 / 나 못다 한 안녕 / 너 울던 그 앞에 밝혀둔 등불 따라 / 나 세어
 둔 인사 (중략) 당신이 버려둔 어제와 지친 그 방 안에 / 쌓이지 못하던 꿈들과 해진 표정 아래 /
 우리가 놓아둔 어제와 녹슨 그 밤 안에 / 말하지 못하던 당신과 애뼌 낙엽 아래 / 나 머물러요

가을밤에 든 생각(잔나비, 2020)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 보고픈 그대 생각 질어져 가는
 시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 수많은 바람 불어온대도 날려 보내진 앓음래 / 잊혀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시월의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 주세요

비로소 너에게 도착했다(마크툽, 2021)

...이윽고 여기 왔어 너의 미소 속에 별을 따라 함께 했던 또 함께 할 모든 날을 그리며 / 오고
 가는 계절과 수 많은 스침과 흠어짐을 지나 비로소 너에게 도착했다 / 처음 내게 왔던 그날의
 향기와 너와 울고 웃던 기억 전부 잊지 않겠다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가사를 적어 보세요.

.....

.....

.....

.....



#가을에 어울리는 책을 소개해 주세요!

당신으로 충분하다 (정혜신, 2013)

괜찮다 모든게 다 무너져도 괜찮다 / 너는
언제나 괜찮다 / 당신의 상처보다 당신은 크다.

멜랑콜리의 검은 마술 (맹정현, 2015)

정신의 특징 중 하나는 “그렇게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데 있다. 우울하다고
믿으면 우울해질 가능성이 많고 행복하다고
믿으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다.

언어의 온도 (이기주, 2016)

“sorry”의 어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안함을 의미하는 “sorry”는 “아픈”,
“상처”라는 뜻을 지닌 “sore”에서 유래했다.
그래서일까 진심 어린 사과에는 “널 아프게
해서 나도 아파”라는 뉘앙스가 스며 있는
듯하다. 진짜 사과는 아픈 것이다.

빈곤했던 여름이 지나고 (태재, 2017)

힘들게 힘들다는 말을 꺼냈던 적이 있다.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은 나에게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네”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다. 함부로 공감해
주지 않아서 고마웠고, 선불리 위로해 주지
않아서 고마웠다.

마흔에 관하여(정여울, 2018)

마흔 이후의 삶은 결코 인생에 덧붙여진 “부록”
이 아니다. 온 모든 시간의 흔적이 응축되어
환하게 빛을 발하는 시기, 오직 “가능성”으로만
존재했던 모든 꿈들이 눈부시게 날개짓을
시작하는 시기, 그런 시기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이길보라, 2020)

“...왜 그렇게 항상 자신감이 넘쳐? 왜 다 해보는
거야 무작정?” 답은 단순했다.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했던 것뿐이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 해봤다.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대화의 품격(이서정, 2021)

상대를 알잡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비한 사람이 나타난다. 상대의 좋은 점을
보고 기대를 거는 사람에게는 그 기대대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려는 사람이 나타난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책 속 좋은 글귀를 적어보세요.

인천공항, 英 스카이트렉스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 2년 연속 2개 부문 수상 쾌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영국 스카이트렉스(Skytrax)사가 주관하는 '2021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2021 World Airport Awards)'에서 인천공항이 '코로나19 방역 우수 공항상(COVID-19 Airport Excellence Awards)' 및 '최고 보안검색 공항상(World's Best Airport Security)'의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스카이트렉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항공서비스 전문 컨설팅 회사로, 매년 세계 각국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공항의 핵심 서비스인 스텝인 스도착 △환승 △보안검색 등 20여 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시상식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반영해 방역 부문이 추가되었으며, 인천공항은 신설된 코로나19 방역 부문에서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며 인천공항의 우수한 방역 인프라를 세계 무대에서 다시금 입증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항공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바탕으로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8월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항 최초로 국제공항협의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ACI)의 '공항방역인

증(Airport Health Accreditation)'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객이 안심하고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하물 스마트 방역 시스템 개발 △비대면 발열체크 로봇 및 키오스크 도입 △소독 및 방역안내로봇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방역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천공항, 국내 공항 최초로 소독로봇 및 방역안내로봇 도입



인천공항방역안내로봇



인천공항소독로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마트 방역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내 공항 최초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소독로봇과 방역안내로봇을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로봇은 소독로봇 2대 및 방역안내로봇 6대로,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우선 배치한 후 향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도 확대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독로봇과 방역안내로봇은 5G 무선통신을 이용해 공항 내 방역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파악 및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자율주행, 물체감지, 자동 도킹·충전 기술 적용으로 공항 내 신속하고 안전한 방

역 대응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인천공항 소독로봇은 인체에 무해한 UV-C 램프를 이용해 입국 게이트에서 검역대까지 입국여객의 동선에 따라 입국장 카펫과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자동 소독하는 역할을 한다. 소독로봇은 정해진 일정대로 입국장 전 지역에서 소독작업을 진행하는 △정기 소독 모드와, 유증상자 발생 시 긴급 소독 일정을 전송받아 유증상자 동선을 집중 소독하는 △긴급 소독 모드로 운영된다. 인천공항 방역안내로봇은 입국장 내를 자율주행하며 방역 지침 미준수자에게 방역 안내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방역안

내로봇은 입국여객 발열 상태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인식해 미준수자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는 △방역지침준수 안내모드와, 검역대 등 입국여객 대기지역에서 여객들에게 검역 및 방역정보를 안내하는 △검역·방역정보 안내 모드로 운영된다. 특히 방역지침준수 안내모드에서는 방역안내로봇이 도착 항공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한 후 항공기 도착 전 해당 입국 게이트 앞으로 이동해 입국여객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안내하게 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도 코로나19 검사센터 오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만 운영 중인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가 8월 25일부터 제1여객터미널에서도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출국 여객의 편의성 개선 및 향후 항공수요 회복기 적기 대응을 위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도 코로나19 검사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이원의료재단이 운영을 담당하며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1층 야외지역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오는 9월 중에는 1터미널 교통센터 서편 지역에 명지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검사센터 1개소가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1터미널 동편 검사센터와 향후 오픈 예정인 1터미널 서편 검사센터,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2터미널 검사센터(인하대병원 운영)는 검사방식, 검사가격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며, 홈페이지 예약(www.airport.kr/covid19/testingcenter) 후 이용 가능하다. 1터미널 검사센터의 운영시간은 매일 07: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이며, 2터미널 검사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7: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

외)이다. 검사비용은 진찰료, 검사비용, 음성확인서 발급 비용을 포함하여 PCR검사 총 126,000원, 항원검사 66,000원 등이다. 주말, 공휴일 및 평일 아침(07:00~09:00) 시간대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코로나19 항원·항체검사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나 PCR 검사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해외 출국을 앞두고 검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검사별 결과확인 가능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여행 주제로 한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 '다시 여행, 인천공항 ON-AIR'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외여행을 주제로 한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인 '다시 여행, 인천공항 ON-AIR'를 8월 10일(화)부터 온라인 오디오 플랫폼을 통해 선보였다. 공사에서 선보이는 이번 오디오 콘텐츠는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라디오 방송 형식을 통해 해외여행의 추억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여행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기획되었다. 방송은 8월 10일(화)부터 9월 2일(목)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네이버 오디오클럽, 팟캐스트, 팟빵, 팟티를 통해 청취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 SNS 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는 '보이는 라디오'영상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방송 진행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소영 씨가 담당하며 여행작가인 임경선 작가와 김민철 작가가 게스트로 참여해 여행 에피소드, 현지 ASMR 효과음 등 해외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했다.

진행
김소영 아나운서
게스트
여행작가 임경선, 김민철

- 청취방법**
- **오디오플랫폼**
(네이버오디오, 팟캐스트, 팟빵, 팟티)
 - 1. 검색창에 '인천공항' 검색
 - 2. 다시 여행, 인천공항 ON-AIR 채널 클릭
 - 3. 에피소드 선택
 - **인천공항 공식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1. 보이는 라디오 영상 시청

삶을 채워주는
일상과 문화 이야기
—
함께 즐기다

사람과 하늘

Play with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이들에게
문화와 예술, 언택트 여행과 공항상식까지
주말엔 <MORE&BEYOND>와 함께
언택트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해설위원으로 활약한 한유미 해설위원

선수 출신인 한유미 여자배구 해설위원은 코트 위의 선수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해설을 한다.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한일전 중계가 끝나고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Q.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KBS N 스포츠 여자배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예능 <노는 언니>에도 출연하고 있는 한유미입니다. 예능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랑 해설위원으로서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Q. 도쿄올림픽에서 후배 선수들의 활약을 보며 어떠셨는지?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걱정을 많이 했죠.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선수 구성이 변하기도 했고, 올림픽 직전 열렸던 VNL(여자배구 네이션스 리그)에서 선수들이 팀워크가 완벽하지 않은 듯한 모습이 보여 배구 관계자들의 걱정이 많았어요. 도미니카 공화국과 일본도 만만치 않으니까 기대를 많이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부담은 내려놓고 올림픽 조별예선을 치르며 접전 끝에 승리하는 경험까지 하니, 선수들끼리 단합도 잘 되고 경기에도 더 집중해준 것 같아요. 그런 절실함이나 간절함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해설을 하면서 감정이입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경기하는 모습 보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HAN YOUMI



Q. 선수 시절 런던올림픽 8강을 경험했었는데, 해설위원으로 이번 올림픽은 어땠나요?

—
선수로 참가했던 런던올림픽 때는 부담이 없어 오히려 즐거웠던 기억이 커요. 즐기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다 보니 더 좋은 결과를 이뤘던 것 같아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돼서, 선수들도 부담감이 컸을 거예요. 해설위원이 되니, 선수들이 이기면 방송국에서 해설위원인 저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선수 때와는 몰랐던 경험을 하고 있어요.

Q. 요즘은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는데, 무관중 경기의 아쉬움은 어떤 걸까요?

—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을 통해 여자배구에 관심이 생긴 팬들과 경기장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싫어요. 하지만 관중이 없어서 어린 선수들이 부담감을 덜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도쿄올림픽이 유관중이었으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에서 일방적인 응원을 견디며 한일전을 치러야 했을 거예요.

Q. 도쿄올림픽을 통해 여자배구의 인기가 한층 더 상승한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으로서 체감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
해설위원인 저에게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니까 감사하죠. 여자배구 좋아하는 팬들도 늘어나고, 선수뿐만 아니라 해설위원이나 아나운서들까지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선수들이 다 한 건데 말이죠.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Q. 경기 전 후 선수들과 인터뷰를 통해 솔직한 마음을 끌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
저는 경기를 못 뛰는 선수들 마음이 어떤지 알잖아요. 지난 시즌 부상 중이었던 강소휘 선수가 걱정되어서 몇 마디 나눴던 건

데, 본인이 워낙 마음 고생을 하고 있었으니 금방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선수 출신이니가 서로 공감이 잘 되었던 거겠죠. 질문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란 생각을 하니가 선수들도 더 솔직한 속마음을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수 시절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다보니 선수들이 속마음을 잘 꺼내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뻘한 질문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이야기나 솔직한 마음 같은 것들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인터뷰 중에 선수들도 울고 공감된 저도 울기도 하는 것 같아요.

Q. 10월 중순에 개막할 V-리그 이번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V-리그에 뛰고 있으니까, 국가대표에서 보

여주는 모습과 소속팀에서 보여주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국가대표에서는 김연경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각자의 팀에서 에이스의 역할을 하며 리더십을 가지고 시즌을 치르고 있어요. V-리그에는 국가대표 못지않은 실력 있고 잘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Q. 여자 운동선수들이 출연하는 예능 <노는언니>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길게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전문 방송인들이 아니니까, 큰 재미는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여색한 모습들까지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다들 선수 출신이어서 숨길 수 없는 승부욕이나 운동신경 같은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 더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노는언니>에서 각 멤버들의 종목 소개를 하다 보니 저 때문에 배구를 알게 되어서 보기 시작하셨다는 반응을 봤을 때는 정말 뿌듯하죠.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배구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배구라는 종목 자체를 전보다 더 친숙하게 느끼시나봐요. 굳이 제가 하는 중계방송을 찾아봐 주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럴 때는 정말 방송하기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
선수 시절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다보니 선수들이 속마음을 잘 꺼내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뻘한 질문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이야기나 솔직한 마음 같은 것들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 인천공항에선 직원분들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Q.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나요?

— 인천공항은 너무나 잘 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워낙 크고 시설도 잘되어 있으니, 길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더라고요. 국제대회에 가다 외국공항에서 수화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선수단 수화물이 많다 보니 오버 차지가 엄청나게 붙기도 해요. 이탈리아에선 게이트가 변경된 걸 모르고 비행기를 못 탈 뻔한 적도 있어요. 해외 진출한 김연경 선수는 늦어서 게이트가 닫히는 바람에 아예 다음 비행기 타고 오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잘못된 터미널로 간 적도 있었는데, 인천공항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문제없이 출국할 수 있었어요.

Q. 최근 인천공항 이용객이 2020년 대비 95% 이상 급감하는 등 침체되어 있습니다. 공항가족들에게 격려의 말씀 전해주세요.

—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시겠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짱하고 해뜰 날이 반드시 돌아오겠죠.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티내는 사람이 승리할 거라 봐요. 여자배구 선수들도 격리를 자꾸 하다보니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더라고요. 격리 상황에서 예능이나 유튜브를 본다던지 스마트폰과 친해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 <웁언니>나 예능 <노는 언니> 보며 웃으시고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요.

Q. 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10월 중순이면 V-리그가 개막합니다. 올림픽에서 활약했던 여자배구선수들의 멋진 플레이 보시면서 스트레스를 푸시길 바랍니다. 저는 KBS N에서 중계하니까 꼭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운동량이 줄어 체중이 늘어난 확진자 분들도 많으신데, 집에서 다이어트도 하시고 정신도 건강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V-리그

한국배구연맹(KOVO)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프로배구 리그 여자부 7개팀, 남자부 7개팀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에는 지난 시즌 챔피언인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와 김연경 선수가 뛰었던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있다. V-리그는 10월 중순에 개막한다.



The Terminal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터미널'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 출입국 심사를 하며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입국 심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떨까?
특히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공항에서의 일이라면 상상도 하기 싫다.

—
공항이 여행을 하면서 지나쳐 갔던
잠깐 머무는 공간이 아닌
삶의 한 부분으로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공감해 본다.
—

실화 바탕의 영화

이 영화는 실제 1988년부터 2006년까지 프랑스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에서 살았던 이란 출신의 무국적자 Mehran Karimi Nasseri의 실화가 모티브가 되어 제작된 영화이다. 공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결격 사유로 인한 입국 불허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INAD(Inadmissible Passenger)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법적인 문제나 사증 미소지, 입국 목적 불분명 등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영화 터미널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영화 '터미널'은 현실적이면서도 영화라는 비현실적인 상황들을 만들어 공항에서 발생된 이야기를 만들었다.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반면에 인간적인 따뜻함과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뉴욕 JFK 공항

영화는 JFK 공항의 활기찬 모습으로 시작된다. 카리스마 넘치는 공항 탐지견들의 모습도 보이고 도착하는 비행기에 맞춰 분주하게 승객들의 입국 심사 준비하는 공항 모습을 볼 수 있다. 방문 목적, 체류 기간, 리턴 티켓 유무 등을 확인하고 수상한 사람들은 없는지 보안 CCTV로 공항을 보면서 검색을 한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인 '크라코지아(영화상 만들어진 가상의 국가)에서 온 주인공 빅터 나보스키가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다. 다른 승객들처럼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하던 중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 동안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바뀌게 되었고 그의 여권마저 정지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고국으로 가는 여객기 운항이 모두 중지되는 것은 물론 새 정부가 국경을 폐쇄하였고 비자도 효력을 잃게 됐다. 빅터는 고국에 돌아갈 수도 뉴욕에 입국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공항에서의 삶, 시작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한 뜻을 알아듣지 못했던 빅터는 대수롭지 않게 심





사 결과를 기다린다. 영어 설명을 알아듣지 못하고 여행을 위해 준비해온 영어 문장들만 대답할 뿐이다. 공항 심사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처음 발생했고 법적으로도 당장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며 난처한 입장일 뿐이다. 결국 입국하지 못하고 공항의 환승 구역 안에서 지내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

공항 TV에 방영되는 뉴스 영상들을 보고 고국이 처한 현실을 알게 되었다. 뉴스를 보기 위해 공항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론 마음이 찡해지고 연민마저 느껴진다. 영어 소통도 불가능하고 울먹울먹하는 그의 모습에서 놀람과 답답했을 그의 심정이 느껴진다. 고국에 전화를 해보려 하지만 전화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바쁜 탑승객들은 그를 외면하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혼자 덩그러니 멍하게 서있는 그의 모습엔 허탈함이 느껴진다. 그러던 중 다른 승객을 돕다가 식권마저 바닥에 떨어트리고 청소부가 바로 청소를 하면서 결국 식권마저 찾지 못하게 된다. 저녁이 되어 힘든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걸어 사람들

이 없는 공항의 가장 허름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긴다. 의자를 붙여 잠을 자려고 하지만 불편한 의자를 직접 개조하고 수리해 잠을 잘 수 있게 만든다. 그렇게 빅터의 공항 생활이 시작된다. 그러나 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불빛에 놀라며 편하게 잠을 자는 것조차 쉽지 않다.

공항 화장실 세면대에서 샤워를 하고 점점 공항 생활에 적응해 나간다.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같이 입국 심사 서류를 작성하러 가고 거절당한다. 그러던 중 그곳에서 심사관을 짝사랑하던 기내식 담당 직원인 엔리크 크루즈를 만나고 공항에서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심사관 토레스와 엔리크를 연결해주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준다. 곧 승진을 앞둔 공항 관리국의 프랭크 디슨은 공항에서 빅터에 관한 문제로 어떤 책임도 떠맡고 싶지 않은 마음에 보안이 없는 시간을 알려주며 빅터 스스로 불법입국을 하길 종용한다. CCTV로 그를 추적하면서 불법입국하기를 기다리지만 그는 CCTV를 응시하며 “여기서 기다리겠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한다.



아버지와의 약속

빅터는 공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9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일자리도 찾고 친구들도 사귀고 사랑에도 빠지며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뉴욕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빅터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강릉 안에는 아버지가 모아온 재즈 연주자들의 사인이 담겨있었다. 뉴욕에 입국해야만 했던 이유인 아버지와의 약속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받지 못했던 마지막 사인이었다. 재즈 연주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사인을 받고 밖에 나온다. 눈이 내리고 있는 아름다운 뉴욕을 배경으로 택시에 앉아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빅터는 기사에게 말한다. I'm going home.

공항 내 다양한 직업군이 나오는 영화

영화 '터미널'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공항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를 소재로 한 영화는 많지만 영화 '터미널'처럼 공항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영화는 우리에게 더 색다르게 다가온다. 공항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들을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공항이 여행을 하면서 지나쳐 갔던 잠깐 머무는 공간이 아닌 삶의 한 부분으로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공감해 본다면 더 즐겁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그날을 상상하며, 영화 터미널을 보면서 공항에서 있었던 추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터미널 (2004년 작)
감독 스티븐 스피버그
주연 톰 행크스

CGV DRIVE IN 스퀘어원에서 이색적인 영화 여행을 떠나보자~!

코로나 비대면 시기라도 문화 생활을 놓칠 수는 없다.
영종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인천시 연수구에
스퀘어원 자동차 극장이 개장했다.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과 함께 안전한 영화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스퀘어원 자동차 극장은 CGV가 처음 선보이는 최초의 상설 자동차 극장으로 도심 속에 자리 잡아 접근성이 좋다. 낮에는 주차장으로 밤에는 영화관으로 쓰이며 차량은 100여 대 수용 가능하다. 가로 20m, 세로 8.3m 크기의 스크린이 갖추어져 있고 스크린 왼쪽에 딜리버리 픽업존이 스크린 오른쪽에는 매점과 화장실이 있다. 영화 감상 전후로 스크린 오른쪽에 있는 승기천 돌레길에서 산책하는 여유도 만끽할 수 있다. 최신 영화를 보면서 스퀘어원에 입점되어 있는 카페와 음식점에서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차 안에서 영화를 보며 다양한 먹거리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배달지 주소를 'CGV DRIVE IN 스퀘어원' 내 CGV 딜리버리 전용 픽업존으로 설정 후 수령하면 된다. 매점에는 즉석 라면, 간식 자판기도 구비되어 있다. 상영관은



하나로 하루에 1~2회만 상영중이고 CGV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예매가 가능하다. 좌석 지정은 되지 않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선착순 입장한다. 입장은 1시간 30분 전부터 시작되지만 좀더 일찍 서둘러도 좋다. 입장할 때 주의사항과 딜리버리 가능한 업체가 나와있는 스퀘어원 팸플릿을 나눠줘서 처음 자동차 극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공간으로 다가온다. 비대면 시기에 무료한 일상 속 이색적인 공간에서 편안한 기분으로 영화를 보며 하루 하루 누적된 피로를 날려보자. 문화생활도 누리면서 방역에 대한 에티켓을 지키는 자동차 극장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자!



CGV DRIVE IN 스퀘어원 이용 TIP

-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촌동 926-15 스퀘어원 (홈플러스 주차장 방향)
- 📄 **이용방법** CGV 홈페이지 (cgv.co.kr) 또는 모바일앱 예매
- 💰 **가격** 평일 기준 2만 4천원, 주말 및 공휴일 기준 2만 6천원
- 🚗 **입장 가능 차량** 승용차, RV차량에 한해 입장 가능





비행기 타이어는 자동차 타이어와 다르다?

비행기 타이어의 경우 기체 무게를 지탱하고 고온과 저온에도 강해야 하는데 튼튼한 타이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동차 타이어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비행기 타이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비행기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비행기의 무게와 압력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이다. 타이어의 내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행기 타이어의 구조는 사실 일반 자동차 타이어와 유사하지만, 자동차의 공기압은 30~40psi*인 것에 비해 비행기 타이어는 자동차에 비해 약 6배 정도인 200psi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고 압력이 훨씬 큰 만큼 강한 무게와 착륙 속도에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졌다.



비행기 타이어 모양은 자동차와 다르다?
비행기와 자동차 타이어의 또 다른 차이는 확연히 눈에 보이는 트레드(바퀴의 접지면)이다. 두 타이어의 사용 목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제동 능력과 접지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비행기 타이어는 직진 능력과 제동 능력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만들어졌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 타이어는 트레드가 복잡한 반면에 비행기 타이어는 단순한 직선 홈 몇 개만 존재한다. 여기서 직선 홈을 통해 비행기의 조향성을 높이고 우천시에도 활주로 표면의 수분을 밀어낼 수 있다. 자동차 타이어 교체시기는 운행거리와 생산 후 경과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비행기 타이어는 평균 착륙 횟수가 대개 250~350회 정도 착륙을 하면 교체 시기를 정하며, 운항 거리가 짧은 노선에 투입되는 비행기 또는 기종에 따라 교체 시기는 달라진다.

수도 있다. 교체되지 않고 썩서 영하 173도까지 원형을 유지한다고 알려진 질소를 주입해서 비행기 타이어 내부 기체가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 없게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앞바퀴와 뒷바퀴의 타이어 크기가 다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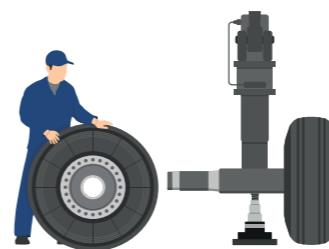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비행기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크데, 착륙시 뒷바퀴가 비행기의 모든 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비행기는 무게 중심 뒤쪽에 메인 랜딩기어를 장착하는 후륜 방식을 대부분 사용하고 동체 중간에 장착된 뒷바퀴로 착륙 시 모든 하중을 견디게 된다. 앞바퀴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고 앞바퀴는 보조 역할을 한다.

타이어 가격 차이?

비행기 타이어라고 해서 자동차 타이어의 재질과 다르지는 않지만 가격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비행기 타이어는 매우 견고하게 제작 되는데 타이어 내부의 나일론 줄과 케라미드 섬유로 불리는 합성 폴리머로 만든다. 비행기 타이어 하나의 가격은 약 100~150만원 이고, 알루미늄 휠은 약 1300만원 정도 라고 한다. 반면 자동차 타이어의 가격은 약 10~20만 원, 알루미늄 휠은 20~30만원 이라고 하니 기능과 역할에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가격 차이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에어버스 A380의 경우 바퀴가 22개로 타이어와 휠 가격만 합쳐도 2~3억 정도라고 한다.

* psi(Pound per Square inch)란? 압력을 세는 단위로 1제곱 인치 당의 파운드(중량)를 의미

비행기 타이어에 질소가 들어간다고?
비행기 타이어는 자동차 타이어와 달리 산소가 포함된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잘 얼지 않는 비활성 기체인 질소를 주입한다. 비행기 타이어는 착륙 시 마찰에 따른 열과 엄청난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데 일반 공기를 사용하면 고열로 인해 타이어가 폭발 가능성이 있고 또한 높은 고도에서 외부 온도가 영하 30도가 되었을 때 일반 공기는 타이어의 내부에 얼어붙는 현상으로 타이어의 균형을 무너 뜨리고 동시에 내부 압력의 변화로 비행기 무게를 감당하지 못 할



이야기가 있는 인천 독립서점을 찾아서

독립서점은 대형서점과 다르게 책방 주인의 취향이 묻어있다.
대형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독립출판물도 만날 수 있다.
이야기가 있는 인천의 독립서점들을 찾아가 보았다.



2020 인천책지도

인천광역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한 인천시에 위치한 동네서점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책공간 정보를 기록한 책.

인천 동네책방 찾기

📍 bookshopmap.com/incheonbookmap

출판계의 골목식당, 독립서점

주인의 취향과 관점이 드러나는 도서와 큐레이팅 서가를 발견하러 독립서점으로 간다. 독립서점은 골목식당처럼 지역의 특수성과 서점 주인의 개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서점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떤 곳은 베이커리 카페를 겸해 커피향기를 풍기기도 하고, 사진관을 겸해 인상적인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하지만, 독립서점을 개성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인의 취향이 묻어있는 서가다. 주제나 이슈에 따라 선별된 서가 앞에 서서 천천히 책표지와 목차를 읽다보면, 마음을 빼앗는 문장을 발견하기 마련이다. 지역에 밀착해 있는 독립서점의 특성은 정기적으로 북클럽이나 글쓰기 모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서점에서 주관하는 오프라인 책모임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모임을 이어가는 곳도 있다.

독립출판물을 만날 수 있는 곳

독립서점을 개성 넘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것 출간된 독립출판물이다. 독립출판이란 대형 출판사를 통한 책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이나 소수 그룹이 기획, 편집, 인쇄, 제본을 진행하여 책을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1쇄에 2,000권~2,500권을 찍어야 하는 대형 출판사는 상업성을 떨 수밖에 없다. 독립출판물은 작가 자신이 기획하고, 인쇄해서, 배포까지 책임지는 만큼 상업성보다는 작가의 성향이 반영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판형이 아닌 작은 크기로 디자인된 책이 나오기도 하고,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분야의 책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독립출판물은 1쇄에 찍는 양이 작고 ISBN(바코드)를 넣지 않기도 해서 대부분 독립서점을 통해 유통한다.

서점 겸 커피하우스 탄똘관똘

'2020 인천책지도'에 따르면 인천에는 82개의 동네서점이 있다. 여러 독립서점 중에 추천할 만한 독립서점들을 방문해 보았다.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서점 겸 커피하우스인 탄똘관똘은 라틴어로 "딱 그만큼"이라는 뜻이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딱 필요한 만큼만 추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서점 주인이 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주안동의 문화에 기여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탄똘관똘은 '사람과 공간'이라는 주제로 독립출판물 중심의 큐레이팅하고 있다. 동시에 기성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서도 독자와 함께 읽고 싶은 책들도 소개한다. 커피하우스를 겸하고 있는 탄똘관똘에는 커피로스팅룸이 별도로 존재한다. 큐레이팅 서가를 중심으로 벽면 소파와 폭신한 쿠션이 손님을 기다린다. 사람과 공간이란 주제로 큐레이팅한 독립출판물들이 제법 흥미롭다.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레트로한 소품들은 잠시 다른 시공간에 방문한 느낌을 자아낸다.

손님들이 음료와 책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 주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공간만큼, 세월처럼 자리잡은 손님들이 책 또는 노트북과 함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이런저런 이유로 책을 구매하기 어려운 이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별도의 '공유서가'도 있으니, 책을 꼭 구입하지 않더라도 음료와 함께하는 독서공간인 탄똘관똘에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탄똘관똘

- 📍 위치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358
- 🕒 영업시간 11:30~20:00 (매주 금요일 휴무)
- 🌐 홈페이지 www.ttqt.co.kr

동인천 화수동 작은 서점, 책방 모도

책방 모도는 '모 아니면 도'에서 따온 이름이다. "적당히 살다가는 서점 같은 건 업두도 못 낼 것 같"다는 책방 모도는 '모'에 살짝 치우친 패기로 2018년 1월 동인천 화수동 골목길에 문을 열었다. 책방 모도 문서희 대표는 시간이 멈춘 듯 옛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동네인 동인천 화수동에서 은헤미용실, 꼬마별 어린이집과 환상의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민트색 건물을 만났다. 담배 가게가 있던 자리에서 담배 말고 책을 팔아보기로 했다. 3년만 버텨보자는 다짐으로 시작한 책방 모도는 어느덧 3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다. 문서희 대표는 "작은 책방을 온기로 채워 주신 고마운 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매월 한 권의 추천도서를 제목을 가리고 판매하는 '책방 모도의 비밀스러운 권유' 프로젝트를 추천했다. 이 프로젝트는

비밀책과 함께 책방 모도의 연재글과 필름 사진 포스터까지 함께 판매하고 있다. 책과 우연히 만나는 기쁨을 경험해 보길 바라는 대표의 마음이 느껴졌다. 책방 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선정한 '2021 동네책방 문화사랑방'에 선정되어 있다.



책방 모도

- 📍 위치 인천시 동구 화수로47번길 14
- 🕒 영업시간 11:00 ~ 19:00(일,월 휴무)
- 🌐 홈페이지 blog.naver.com/modobooks032



가끔씩 책방에 오셔서 책을 한 가득 사가는
 낮익은 얼굴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기사에 난 사진을 보고
 『괘이부리말 아이들』의 김중미 작가님이셨어요.
 지난 3월에 출간된 소설 『결에 있다는 것』
 한 장면에서 책방 모도가 등장했습니다.
 책방 모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살짝 넣어 보셨다고 해요.
 신기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책방 모도

인천의 책문화를 만들어가는 굴포천역 북극서점

북극서점은 굴포천역 4번 출구에 위치한 독립서점이다. 책방지기 슬로보트는 “기다린 냇가를 산책할 수 있는 굴포천과 잘 다듬어진 정원이 있는 신트리 공원이 무척 매력”적이라며, 북극서점 근처에서 “다양한 창작자들의 작업실과 멋진 카페, 맛집도 많아, 한적하고 넉넉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인천에 아직 독립출판물을 소개하는 개성있는 책방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 문을 열게 되었다. 책방지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으나 원하는 삶을 위해 그만두고, 현재 싱어송라이터, 작가, 문화기획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서점 안의 작은 미술관 북극홀에서는 매달 새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멋진 큐레이션 공간과 독립출판물, 해외 아트북, 귀여운 굿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인천 아트북 페어 <싱얼롱페이퍼>, 인천 북스토어 페어 <선셋서점> 등 다양한 축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서점에서 재미있는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북극서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면 모든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북극서점 휴일에 서점 전체를 대관하는 ‘북극 북캉스’가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할 수 있다.



가정동 서점안착과 갈산동 연꽃빌라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서점안착은 동네 책방과 소규모 사진관, 그리고 카페를 겸하고 있다. 서점안착은 동네에 오랫동안 안착하고 싶은 마음을 이름에 담았다. 같은 공간에서 운영 중인 ‘호미사진관’의 이름은 책방지기의 반려견 ‘호미’에서 따왔다. 책방에 들어서면 ‘호미’ 손님을 맞으며, 손님들의 반려견 동반 입장을 환영하고 있다.

연꽃빌라는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작은 책방 겸 카페다. 일본 작가 무레 요코의 소설 <세 평의 행복, 연꽃빌라>에서 이름을 빌려왔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창가 자리와 테이블석이 마련되어 있다. 책방 겸 카페 답게 서가에서 서서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서가에는 책방지기가 고른 책이 큐레이션 되어 있다. 커피와 차, 디저트도 수준급이다. 북토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고 공간대여를 제공하고 있다.



<고사리 가방>, <굴 사람>의 김성라 작가님의 원화전을 기획한 것을 계기로 글작가와 그림 작가로 만나 <고르고르 인생관>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은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출판 부문 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초등학교사로 근무했을 때는 제 자신이 조금 특이하다고 느끼며 외롭기도 했었죠. 북극서점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을 찾게 된 것 같아요. 마음껏 글을 쓰며 작가의 꿈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원하는 일에 마음껏 도전하고 싶습니다.

북극서점



서점안착

- 📍 위치 인천시 서구 염곡로 498번안길 5-20
- 🕒 영업시간 화~금 12:00~19:00, 주말/공휴일 13:00~19:00 (월 휴무)
- 📱 인스타그램 @anchac.books

연꽃빌라

- 📍 위치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547번길 8-12
- 🕒 영업시간 금~수 12:00~22:00 (매주 목, 둘째, 넷째 토 휴무)
- 📱 인스타그램 @kimbiub

북극서점

- 📍 위치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221번길 27, 2층
- 🕒 영업시간 전날 인스타그램에 오픈 시간 공지
- 📱 인스타그램 @bookgeuk

<MORE & BEYOND> 공항 Letter

딩동! 반가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MORE & BEYOND> 편집실에 보내주신
7+8월호 독자 후기를 소개합니다.

인천공항의 '마티나 라운지'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뭐니 뭐니 해도 여행의 즐거움은 먹는 것이 빠질 수 없겠지요. 세미뷔페의 예쁜 음식들을 보니 더욱 '여행'에 대한 갈증이 더해지네요. 언젠가 마티나 라운지에서 든든히 배를 채우고 즐거운 비행기 여행에 오를 그날이 기대됩니다.

권영우 님

공항에서 사용되는 부품 관련 국산화 프로젝트를 하는 에코로셀과 가상현실 INVERSE 서비스가 흥미로웠습니다. 오프라인 서비스 기반 사업이라 생각했던 공항에서 메타버스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꽤나 참신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김상민 님

'인천공항 응급실' 인천공항의료센터의 소개 잘 보았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 해외 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공항에서의 검역강화와 격리치료가 중요한 만큼 인천공항의료센터의 중요성 더욱 커지지 않나 싶네요. 인천공항의료센터 직원분들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유재범 님

공용여객서비스 시스템운영팀에서 하는 일을 다룬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원활한 운영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인천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 분야를 계속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강주 님

알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후기를 기다립니다. <MORE & BEYOND>에서 재미있었거나 유익했던 코너, 개선했으면 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코너 등을 웹진 '독자 후기' 게시판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글 중 채택되신 분께는 편집실에서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방법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인천국제공항 매거진 <MORE & BEYOND> 웹진에 접속해 메인 화면의 '독자 후기' 버튼을 클릭하면 후기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상시)

* 작성 시, 당첨자 확인 및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MORE & BEYOND> 독자 댓글 이벤트



기간 9월 1일~10월 31일

방법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인천국제공항 매거진 <MORE & BEYOND> 웹진에 접속해 메인 화면의 '퀴즈 게시판' 버튼 클릭하기 →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기기

Q1.

<Issue> 코너에서 인천공항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을 위해 아시아 공항 최초로 '이것' 가입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이것'의 목표를 실현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캠페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 영어 + 숫자

Q2.

<One Team> 인터뷰에서 안세기술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동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한 이것의 한글 명칭은 무엇인가요?

*힌트 : 영문 약자 IDGS

상단의 QR코드 스캔하기

↓ 또는

<MORE & BEYOND> 웹진에 접속하기

퀴즈 게시판 클릭하기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기기

-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 및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자 후기를 함께 남겨 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안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예방접종 후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피로감

두통

예방접종 후, 이런 증상이 생기면



접종부위 부기·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세요.

전신 통증이나 발열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종 전 미리 해열·진통제를 준비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하세요. 해열·진통제 복용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염증 제거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 되는 경우

대부분 해열·진통제 복용으로 증상이 호전되나, 3일 이상 발열이나 근육통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만일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 경우에는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하기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예방접종 후 나의 증상을 확인하고, 대응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20주년,
국민의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갑니다!

2030년, 새로운 인천국제공항의 미래



세계 공항 서비스 1위 유지, 국제공항협회(ACI) 인증 고객 경험 최상위 공항



국제항공운송 여객+화물+운항 실적 세계 1위의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



융복합 문화벨트를 아우르고 다채로운 예술작품을 만나는 문화예술공항



공항지역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아시아 최초 에너지 자립 공항